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피아니스트 백혜선 교수

인생의 가을 지점에서 만난 피아니스트 백혜선 - 그녀의 보스톤 클래식

생각의 자유를 위해,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미국행 영감과 깨달음을 주는 예술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클래식 음악가면 엄청난 행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이상원 객원기자 = 1990년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두던 한국 사람이라면 피아니스트 백혜선을 모를 수는 없다. 화려한 콩쿨 경력에 실력까지 인정받아 한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렸던 그는 2005년 안정된 생활을 박쳤다. 영혼의 자유를 찾아다시 미국행을 선택한 뒤, 14년의 시간이 흘렀다. 인생의 경로는 변하지만 클래식에 대한 열정은 변하지 않았다. 5년 전 클리블랜드 음악원에서 교편을 잡았다. 작년 가을부터는 모교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돌아와 교수로 재직 중이다. 6월 14일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를 위한 모금 연주회를 여는 백혜선 씨를 본지 객원기자인 소프라노 이상원 씨가 이메일을 통

해 만났다. (편집자주)

우: 작년 가을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돌아오셨다. 올해로 국제무대 데뷔가 30년이다. 이제는 청년기에 접어든 두 자녀의 엄마가 되셨는데, 연주자 및 교수로 그간의 모든 여정을 거쳐 다시 보스톤에 돌아오신 소감은 어떤가?

백: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아니면 인생의 가을 지점에서 나에게 유익했던 음악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주: 백혜선 씨는 14세에 보스톤으로 유학해 학사와 석사,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 모두를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에서 마쳤다.) 더욱 음악에 헌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굉장히 영광스럽고 여러 가지 감회가 >>4면으로 계속



보스톤의 가장 변화한 쇼핑몰인 프루덴셜 센터 인근에서 택시운전사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스톤 프루덴셜 센터 한 남성 총 맞아 숨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보스톤에서 가장 변화한 쇼핑몰인 프루덴셜 센터 인근 헌팅턴 애비뉴에서 한 60대 택시 운전사가 6월 4일 오전 11시께 총에 맞아 숨졌다. 희생자는 로킨슨 오루마(Luckinson Oruma, 60)씨로 5자녀를 둔 아버지로 밝혀졌다. 이날 새벽 6시에 택시 운전을 시작해 4시에 교대하는 근무였다.

총격을 가한 남성은 택시를 몰고 도주했으며 목격자들의 신고로 인근 링 로드(Ring Road)에서 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된 혐의자는 필립 로이(34)로 로드아일랜드 포터킷에 거주하는 남성이다. 경 >>7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law@lookjs.com

여름출발
인천행 직항항공권
\$1590~

ICE TRAVEL
617.424.8956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Korea licensed
Muti -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w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www.BostonParkRealty.com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성소수자 품는 공동체로 첫 한인교회 시작

크레파스 교회 프로젝트 추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으로 성소수자 교회를 표방하는 크레파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구현우 전도사(33)는 “아직은 교회가 아니지만 성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는 공동체로 시작해 추후 크레파스 교회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레파스 프로젝트는 자메이카 플레인에 위치한 퍼스트 배티스트 미국교회에서 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9월부터 진행되며 독립할 때까지는 이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한인 성소수자들을 품는 공동체를 구성할 것 이란다.

한인교회들의 보수성 때문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맞이해왔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구현우 전도사(33)는 “흔히들 한국교회가 갖는 선입견은 ‘한국사람들 중에서는 쿼어가 없거나

적어, 한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쿼어가 없어’ 라는 두가지 생각이 합쳐져 우리 교회에는 절대 없다고 편하게 생각한다” 고 지적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다.

구현우 전도사는 “동성애자 또는 성소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고 밝혔다.

문제는 보스톤 한인사회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다. 한인사회의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수요가 없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다. 구현우 전도사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인 이면서 쿼어인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한국교회의 억압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한인교회를 목표로 크레파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구현우 전도사(33)와 조영준(24)씨가 보스톤코리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조영준(24) 씨는 “많은 교회를 다녀 봤는데 나는 이것(성소수자교회)이 왜 중요한지 공유하고 싶었다. 부모는 애리조나에 살고 어렸을 때 한국 교회 다녔다. 대학시절 부모에게 ‘게이’ 라고 고백했을 때 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아무런 말 못하는 그제 더 상처가 되었다. 한국문화에서는 남들의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게 큰 이유인지 나중에야 알았다. 그게 어렵지만 보스톤에서 살았으면

미국 교회를 다니고 대학교에서 게이이며 한인 기독교인들을 만났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게이임을 밝히지 않는 것을 목격했다” 고 말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하는 것은 미국 교회다. 미국교회에서는 커밍아웃해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만 정체성이 미국사람들과 맞지 않는다. 하지만 교감이 잘되는 한국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으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자신을 밝힐 수 없다. 결국 선택

은 교회를 떠나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것이다.

구현우 전도사는 왜 성소수자를 위한 사역을 시작했냐는 질문에 “성소수자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고 밝혔다. “제 스스로가 쿼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동성애자가 아닌데도 제가 나서서 것은 현재 동성애인 목회자가 존재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풍토에서는 나올 수 없으니까 그역 >>3면으로 계속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 2면에 이어서

할을 할 수 있다" 고 생각했다.

구 전도사는 "제가 믿는 교회는 이것이 맞다. 제가 믿는 예수는 모든 사람을 품어주었고 하나님은 (사람을)실수없이 완벽하게 만드신 것이다. 저의 작은 움직임이 하늘 나라에 한 발짝 더 갈 수 있다. 기독교 종교가 약자를 위하고 차별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길을 찾아가야 한다." 고 두번째 이유를 말했다.

보수성이 강한 한인 교회의 경우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성경에 근거해 동성애 등이 죄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 전도사는 다르게 생각한다. "성경이 죄라고 지적했다 해도 성경은 살아있어야 한다. 2000년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장애인 혼방직물은 허용하면서 굳이 쿼터만을 문자적으로 끄집어 내는 것은 광계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크레파스 프로젝트는 9월 첫주부터 성소수자 신학강좌를 시작한다. 주말에 같이 모여서 밥먹고 이야기하고 성경공부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아직 작업중이고 페이스북은 크레파스 프로젝트 Krepass project 다.

editor@bostonkorea.com



가칭 매사추세츠한인회(보스톤 한인회) 임원단들의 종교단체 방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좌로부터)성요한 교회, 성 앙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문수사 방문 모습



한인회 매주 종교단체 방문 "지금도 현재 진행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가칭 매사추세츠한인회(보스톤 한인회) 임원단들의 종교단체 방문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장우석 40대 한인회회장을 비롯한 임원단은 5월 12일 웨이크필드에 위치한 문수사(주지해각 스님)를 방문해 부처님 오신 날 축사를 전하고 불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5월 19일에는 렉싱턴 소재 성요한 교회 (담임 조상연 목사)를 방문했다. 조상연牧사는 장우석 회장에게 시간을 주어 한인회 주최 행사 소개와 참여 및 후원을 호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6월 2일에는 뉴튼에 위치한 성 앙

투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을 방문했다. 박효재 주임대리 신부가 미사를 마칠 때 즈음해서 장우석 회장에게 시간을 할애했다. 장 회장 등 임원진은 한인회 소개 및 곧 진행될 오픈 하우스, 8.15 광복절 한인 체육 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광고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친교시간을 통해

더 가까이 한인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사항 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한인회 측은 6월, 7월에도 계속 종교단체 방문은 계속 이어진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총영사관 단체장 초청 간담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총영사관 주최 매사추세츠 지역 동포간담회가 5월 30일 저녁 6시 총영사관 관저에서 진행 되었다. 이날 한인회 (장우석 회장) 회장단 포함 각 직능단체장 등이 초대되어 간담회 참여했다.

이충현 부회장은 이메일을 통해 "장우석 회장이 한인회 회칙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 하였고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SATI 및 SATII 준비 전문학원
 SATPLUSTUTORING.COM
 TEL: 781-398-1881

393 Totten Pond Rd #101, Waltham, MA 02451

SAT Plus Summer Schedule 2019

July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7/8 - 7/26	Mon-Fri
Chemistry(Preview)	1:00 PM - 3:00 PM	7/8 - 7/29	Mon/Wed/Fri
Biology(Preview)	4:00 PM - 6:00 PM	7/8 - 7/29	Mon/Wed/Fri

August 2019

Class	Time		
SAT I Prep	8:00 AM - 12:00 PM	8/5 - 8/23	Mon-Fri
SAT II Subject Tests (for August 24 test)	1:00 PM - 3:00 PM 4:00 PM - 6:00 PM	8/5 - 8/23	Mon/Wed/Fri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엄숙한 음악 연주 아닌 화기애애한 대화형 음악회

▶▶1면에 이어서 새롭다. 더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다는 의무감까지 느껴 어깨가 무겁다. 스승님(변화경 교수와 러셀 셔먼 교수)들이 계셔서 다시 학생이 된 느낌도 있고, 더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평생 학생이었으면 참 좋겠다.

우: 한국인 음악가로 미국이나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가? 아니면 한국인이었기에 혹은 한국이 있었기에 힘을 얻었던 적이 있었는가?

백: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힘들다. 인종 차별을 온 몸으로 느끼며 늘 최선을 다하고 극복해 나간 세대라 생각한다. 1994년 차이코프스키 콩쿨에 나갔을 때, 동양 여자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견뎌서 입상할 수 있었다 (90년도에 이미 한번 겪어본 적이 있었다).

내가 성장하던 시대에는 우리나라가 문화에 그리 관심을 두지 않아서, 워싱턴에서 국제 콩쿨에 1등을 했을 때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는데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들었다.

지난 25년 간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경제인들이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게 유행이 됐고, 여러 콩쿨들은 한국 입상자들이 모든 상을 휩쓸어갈까 봐 걱정한다.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국 젊은 음악가들을 이길 수 있겠냐고 묻기도 하고 대사관, 영사관, 유엔 한국 대표들은 음악인들을 먼저 내세워 외교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 지금도 계속 한국에서 꾸준히 연주를 하시지만, 생활의 터전을 한국에 두는 것과 미국에 두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백: 미국으로 터전을 옮긴 이유는 내 스스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에 모르는 것이 많아 내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우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내 자신이 계속 도전하고 정신/영혼의 자유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방해 받지 않는 영역이 필요했는데 나는 한국에서 충전 없이 계속 소모가 되는 느낌이었다. 생각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미국으로 옮겼다. 한국에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일과는 거

리가 있게 생각되기도 하고, 음악을 하더라도 실용음악이 대세인 요즘이다.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는 후배들과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백: 정신적인 영감과 깊은 깨달음을 주는 예술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것 같다. 춤에서도 기본은 발레, 음악에서도 기본은 클래식, 미술도 마찬가지다. 모든 분야는 시작이 클래식이다. 왜냐하면 균형과 문법, 그 분야의 다양한 테크닉을 배워야 그로 인해 자기 분야에서 표현 방법이 더 풍부해지고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것을 바탕으로 응용과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용음악과 재즈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클래식을 기본으로 갈고 닦는다.

나는 클래식 음악을 통해 표현 방법을 찾지만, 어느 분야든 연마와 단련을 해야 하는 것은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용음악 분야가 더 안정적인 삶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분야든 자신을 계속 깨어있게 하고 고인 물이 되지 않게 노력하며 새로운 충전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화려한 콩쿨 경력에 실려까지 인정받아 한국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렸던 그는 2006년 안정된 생활을 박쳤다. 영혼의 자유를 찾아 다시 미국행을 선택한 뒤, 작년 가을부터는 모교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돌아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클래식 음악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야하고, 그 길이 주어져야 한다. 계속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노력하다가 뒤돌아보는 순간, 자신이 생각된다. 어떤 면에서는 선택을 받아 클래식 음악가가 ▶▶5면으로 계속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관장으로 에브리타임 활력충전!

3월 31일 까지

Event 1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Mild 100g 증정

Event 2



홍삼정 골드, 홍천옹 구입시
홍삼정 마일드 10파우치 증정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포 주문후 다음날 판매처 방문예치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4면에 이어서 되어있다면 너무나 행운이고, 선택 받은 것에 감사하고 더 열심히 살면 되는 것 같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다. 그 분야로 가는 길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누구나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도, 엄마가 되는 것도 다 그런 것 같다. 이제 나는 그것을 아는 나이가 되었다. (웃음)

우: 이번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후원을 위한 모금 콘서트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가? 어떤 곡을 연주할 예정인가?

백: 5년 전에도 한미예술협회 음악회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스톤에 자리를 잡고 나니 음악인으로서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예술을 살리고, 사회가 좀 더 문화를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다음 세대의 관심이 테크놀러지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문화와 예술을 꾸준히 격려하고 싶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싶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기금이 필요하고 또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하니까 나부터 재능 기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베토벤의 소나타 23번 <열정>, 쇼팽의 녹턴 두 곡과 라벨의 <라 발스> 등을 연주한다.

우: '소확행'이란 말을 아시는지? 선생님에게 '소확행'이 있다면? (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에 처음 나왔던 말이다.)

백: '소확행'이란 말은 처음 들어본다. 인생을 뒤돌아 보면 모두가 다 소확행이 아니었을까? 그걸 다 합치면 '대확행'이 되나? (웃음) 모든 순간에 감사와 은혜이고 작은 기적들이었다. 음악과 매일 함께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다. 연주 준비를 하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표현될 때 행복하고, 그렇게 못해 내도 행복하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매 순간이 나에게 소확행이다. 나는 엄청나게 긍정적이다. (웃음)

우: 이번 연주를 기다리시는 보스톤의 팬들께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백: 좋은 뜻을 가지고 마련한 작은 음악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이때, 같은 생각을 가진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연주만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관객과 대화하는 화기에애한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피아니스트 백혜선 교수,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를 위한 모금 연주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세심함과 사려 깊음이 앞서서 뛰어난 기교의 음악가' (LA 타임즈), '통이 크고 개성적인 퍼스널리티' (뉴욕 타임즈), '유연하고, 활달하고, 의미로 가득찬 놀라운 연주' (보스톤 글로브), '이성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테크닉' (뮤지컬 아메리카)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가 오는 6월 14일 금요일에 뉴잉글랜드 음악원 (NEC)의 윌리엄스 홀에서 모금 연주회를 갖는다.

보스톤 지역 및 뉴잉글랜드 음악원과 오랜 인연이 있는 백혜선씨는 1994년 한국인 최초로 차이코프스키 콩쿨에서 입상하며 (1위 없는 3위) 음악계에 크게 이름을 알렸으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리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윌리엄 카펠 콩쿨 등에서 입상하였다.

미하일 플레트네프, 사이몬 래틀, 바실리 시나이츠키, 드미트리 키타옌코, 스타니스라브 스크로바체스키, 정명훈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연주하였고 보스톤, 내셔널, 런던,



버밍햄, 벨기에 내셔널, 오사카, NHK, KBS, 뮌헨, 라디오 프랑스, 도쿄, 바르샤바, 모스크바 필하모닉, 러시아 내셔널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며 세계적인 연주 경력을 쌓았다.

20대 후반에 최연소 교수로 서울대학교에 임용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10년 후 다시 도미하여 클리블랜드 음악원의 교수로 지난 5년 동안 재직하였으며, 작년 가을부터는 모교인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보스톤 한미예술협회(이사장 정정숙, 회장 김병국)를 후원하기 위

한 이번 모금 연주회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쇼팽의 녹턴 두 곡, 라벨의 <라 발스> 등이 연주되며 연주자의 해설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공연 정보>

피아니스트 백혜선 연주회
 일시: 2019년 6월 14일 (금) 오후 7시 30분
 장소: 뉴잉글랜드 컨서바토리 윌리엄스 홀 (290 Huntington Ave. Boston, MA)
 입장권 및 문의: kcsboston.org 또는 (781) 223-4411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령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피전, 족발, 보쌈, 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령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on Beacon Hill
 155 Cambridge St. Boston
 617.873.8880
 SeoulFoodBoston.com



가주 순두부

캔모어 지점 그랜드 오픈

영업시간 : 오전10시~ 밤10시까지



Korean Gourmet Food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캔모어 지점
636 Beacon St.
Boston, MA 02215
(617) 936-4252

얼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박현욱 학생 모스트아츠 피아노경연 결선 진출

알프레드 대학 모스트아츠 최종상금 1만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베이커스쿨에 재학중인 박현욱(14)학생이 알프레드대학 연례 모스트아츠 페스티벌(MostArts Festival)의 젊은 피아니스트 경연대회서 8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클래식 뮤직 및 예술 축제인 모스트아츠 페스티벌은 뉴욕주 알프레드에 위치한 알프레드대학 캠퍼스에서 7월 7일 시작해 1주일간 열린다. 영피아니스트경연대회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1등 1만불, 2등 5천불, 3등 2,500불의 상금을 지급한다.

파이널리스트에는 박현욱 학생을 비롯해 뉴햄프셔 하노버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에 재학중인 맥시인 박(Maxine Park) 등 2명의 한인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총 8명의 결선 진출자중 6명이

아시아 학생들이다.

박현욱 학생은 7월 11일 목요일과 12일 금요일 양일간에 열리는 결선에서 모스트아츠 인터내셔널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협연으로 모짜르트 피아노 콘체르토 No. 23 A Major를 연주한다. 청중들은 투표로 가장 좋은 피아니스트를 선정한다. 우승자 및 수상자들은 13일 토요일 저녁 갈라 콘서트에서 발표된다. 우승자는 또한 영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프로그램 입학허가를 받게 된다.

박군은 뉴잉글랜드 음악원(NEC)에서 변화경 교수의 사사를 받고 있다. 한국 출생인 박군은 대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국경연대회에서 2012, 2013년 우승했고,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에서 3번 1위를 차지했다.

변화경 교수는 한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청소년 피아니스트로 15세 때 오케스트라와 전국순회 협연을 펼쳤으며



1979년부터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후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변화경 교수는 많은 유명 피아니스트를 사사했다. 모스트아츠 페스티벌 이벤트 정보와 티켓 정보는 모스트아츠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MostArts@alfred.edu, 607-871-2562로 문의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근후 박사 강연회 성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공익사단법인 가족아카데미 이사장 이근후 박사의 보스톤 강연회에 약 80여명의 한미노인회 회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란 제목으로 25일 토요일 성요한 교회에서 개최된 강연은 고백린 선생 가족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윤철호 노인회장은 "약 80여명이 참석하여 재미있게 경청 하였고 질문도 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고 밝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의 저자인 이근후 박사는 강의 후 책판매대금 \$1,000을 모두 노인회에 기부했다.

1935년 대구에서 출생한 이 박사는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연세대 및 이화여대 정신과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활발한 강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의 후에는 고백린 선생의 삼남 백형기, 홍경애 부부가 준비한 점심을 들면서 대화를 나눴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근후 박사(가운데) 함께 노인회 임원 이사진

보스톤산악회 정기산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산악회가 뉴햄프셔에 위치한 질랜드 마운틴(Zealand Mtn)으로 정기산행을 6월 15일 토요일 떠난다.

질랜드 마운틴은 초보부터 전문 산행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코스 가 있어 A조(왕복 10.2마일), B조(왕복 7마일), C조(왕복 4.6마일)까지 나눠서 산행을 실시한다. C조의 목적지인 AMC Hut까지는 등산로가 아름답고 비교적 평이로와 모두 등산 가능하다.

참가비는 \$20이며 참가신청 마감은 6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등산 당일 집결은 뉴햄프셔 샬럼 93번 2번 출구 파크엔라이드에는 오전 7시 15분까지 해야 한다.

준비물은 등산복, 등산화, 모자, 배낭, 중식, 등산용 스틱, 물 1.5리터 등이다. 정상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기온 변화가 심하니 항상 여름에도 장갑과 바람막이 모자 달린 자켓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및 참가신청은 978-569-3256 (김상호)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백형기 홍경애 부부가 준비한 점심을 들고 있는 노인회원들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료(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미들섹스 카운티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과 마크커 렉싱턴 경찰서장은 렉싱턴에 거주하는 홍안 선(50)을 아내 셴 카이(49) 살해 혐의로 체포했으며 기소됐다고 5일 밝혔다

렉싱턴서 이혼 소송중인 여성 사체로 발견

아시아 여성 지난주 차에서 살해된 채 발견 격렬한 부부싸움, 살해위협 친구에게 토로 경찰 살해혐의로 남편 홍안 선 씨 체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렉싱턴 거주 50대 남성이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혼다 CRV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사망친구들에게 살해위협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미들섹스 카운티 매리언 라이언 검사장과 마크커 렉싱턴 경찰서장은 렉싱턴에 거주하는 홍안 선(50)을 아내 셴 카이(49) 살해 혐의로 체포,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셴 카이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2시 30분께 렉싱턴 하이스쿨 인근 워넨 로드에 정차된 흰색 혼다 차량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결과 물리

적인 질식사사로 인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후 카이 씨가 남편 셴 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것을 파악했다. 카이씨는 친구들과 변호사에게 언어폭력과 행동의 제약을 받아 왔음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한차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카이씨는 살해위협을 느꼈다고 이야기 했었다.

경찰은 두 부부가 5월 28일 격렬한 몸싸움을 벌여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상흔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남편은 경찰의 수사를 현혹하기 위해 아내를 집에서 살해한 후 차량에 태워 워넨 도로에 차를 세워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hsb@bostonkorea.com

승차거부에 격분 9발 난사 살해

“당신이 차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움직이게 하겠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총격범이자 살해 혐의자인 필립 로이(34)는 맨스필드(Mansfield)로 데려달라는 그를 택시운전자 루킨슨 오루마(60)가 승차거부하자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체스터에 거주하는 루킨슨 오루마는 5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 Independent Taxi Owners Association 사의 택시를 매일 순번제로 운전하는 운전사였다.

경찰에 따르면 로이는 사건 당일 인근 전철역에서 나와 헌팅턴(Huntington) 에비뉴로 걸어가 콜로네이드(Colonade) 호텔 앞에 서있는 오루마의 택시로 향했다. 그는 오루마에게 맨스필드로 가자고 했고 택시 운전사는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로이는 “택시를 움직이든지 아니면 내가 당신을 움직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놔으나 여전히 그가 거부하자, 운전석 쪽으로 가서 오루마를 끄



총격범이자 살해 혐의자인 필립 로이(34)는 맨스필드(Mansfield)로 데려달라는 그를 택시운전자 루킨슨 오루마(60)가 승차거부하자 총격을 가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어 낸 후 총을 한발 쏘으며 그가 쓰러지자 무려 8발을 더 퍼부었다.

로이는 이 택시를 타고 바로 인근인 링 로드(Ring Road)까지 가서 택시에서 내렸고 총과 총알을 던진 후 그의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스타마켓

(Star Market) 앞 테이블이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경찰에게 그인 것을 지목했다. 경찰이 접근하자 다른 한 사람을 잡고 앞으로 내세웠으나 사고 없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프르덴셜 센터 한 남성 총맞아 숨져

▶▶1면에 이어서

찰은 링 로드에 정차된 택시 옆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를 발견, 확보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범행과정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의 총격이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그를 살인, 차량납치, 그리고 오루마씨 총격과 연관된 다른 범의 혐의로 기소했다.

거의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던 보스톤 다운타운에서 총기 범행

이 발생하면서 근처의 직장인, 쇼핑객, 관광객, 학생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사람들은 “실제 총기범(Active Gunman)”이라 소리치며 피할 곳을 찾아 달렸으며 경찰차의 사이렌, 헬리콥터 소리 등으로 큰 혼돈에 빠지기도 했다.

마티 월시 보스톤 시장은 “총기 사고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밝혔고, 보스톤경찰청장 윌리엄 그로스는 “총기사고가

대낮 보스톤에서 발생한 것은 불행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스이스턴 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보스톤 글로브와의 인터뷰에서 “대낮에 이런 사건이 보스톤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다”고 밝혔다.

보스톤 경찰은 목격자들을 버스 두 대에 나눠 신고 보스톤경찰 본부로 이송해 이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파산보호, 콜렉션 방어, 채무 조정
신용점수 분쟁 및 조정
교통사고 상해, 이민법
법인 사업체 등록, 정관, Bylaws, TIN
부동산/비즈니스 P&S 및 Closing
민/형사 소송

파산보호신청 의뢰인께
드리는 기본 서비스

프리미엄 크레딧 리포트
크레딧 어슈런스
리포트 모니터링 서비스(1년)

*익스페리언, 트랜스 유니언, 에퀴팩스 및 공공기록,
저당 및 판결결과 조사, 추가로, 현 점수 및 경리이후
예상 신용점수도 함께 제공

*Data Provided by CIN LEGAL Data Services.
Additional fee may apply.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매사추세츠 및 뉴욕 주 라이선스
CHANG & ASSOCIATES, P.C.

FAX: 781.712.2066
changlaw781@gmail.com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형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1, J1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125 Cambridge Park Dr. Ste301
Cambridge MA 02140
Woburn: 76 Winn St. 1F Woburn MA 01801

딸기밭이여 영원하여라! 보스톤 인근의 딸기농장 7곳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선경 기자 = 여름은 달콤한 베리가 익어가 는 계절이다. 6월에 수확하는 딸기를 시작으로, 7월 체리, 블루베리, 8월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 여름 내내 베리 피킹 시즌이 이어진다. 본래 6월 초부터 피킹 시즌이 시작되는 딸기는 올 봄 늦게까지 머물다간 추위로 인해 조금의 햇빛을 더 받아야 하는 모양이다. 보스톤 인근의 여러 농장에서는 6월 중순부터 딸기 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빨갛게 익은 딸기를 맞이한다. 가장 맛있는 딸기를 맛 보기 위해, 혹은 아이와 함께 여름 나들이 겸 농장 체험을 하러 딸기 피킹을 가게 된다면 편안한 옷차림과 야외선 차단제를 잊지 말자. 또한, 날씨

와 그날 수확량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 전 농장에 미리 연락해봐야 한다.

토가스 가족 농장 (Tougas Farm)
시중에 파는 딸기와는 차원이 다른 맛을 보장하는 토가스 가족 농장이 7월 딸기 피킹 시즌의 문을 연다.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피킹이 가능하며 딸기를 판매하는 농장 가게 및 놀이 시설은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딸기 수확량이 증가하기 전까지는 피킹 가능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미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신선한 딸기 외에도 딸기 도넛과 아이스크림, 각종 제과류를 판매한다. 입장료는 일 인당 7불이며 피킹한 딸기는 파운드당 4.5불로 지불한 입장료

를 제외한 값을 내면 된다. 농장을 6월 말 방문하면 체리 또한 피킹 할 수 있다. 블루베리는 7월, 복숭아와 블랙베리는 8월부터 피킹 시즌이 시작된다.

246 Ball Street, Northborough
508-393-6406
tougasfarm.com
마리니 농장 (Marini Farm)
마리니 농장에서는 6월 15일 딸기 축제가 열린다. 신선한 딸기와 직접 구운 딸기 쇼트 케이크가 주인공인 축제에 조랑말 타기와 앤틱 트랙터 등 다양한 놀이기구로 어린아이를 포함한 온가족을 초대한다. 입장료는 10불이며 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다. 딸기 피킹이 시작되는 시기 또한 6월 중순경으로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매일 오전 8:30부터 오후 6시까지 비닐하우스와 농장 부스가 열리며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과일 및 채소, 신선한 빵과 육류, 유제품을 판매한다.

259 Linebrook Road, Ipswich
978-356-0430
marinifarm.com
스몰락 농장 (Smolak Farm)
300여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농장으로 딸기 피킹은 6월 중순 시작된다. 15일과 16일 딸기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으로 입장료는 1인당 10불이다.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복숭아뿐만 아니라 구스베리, 자두 등 다양한 여름철 과일 피킹이 가능하다. 피킹 시즌에 맞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마리니 농장 (Marini Farm)



스몰락 농장 (Smolak Farm)



토가스 가족 농장 (Tougas Farm)

과일 투어를 진행한다. 마차를 타고 농장의 역사를 둘러보고 과일밭으로 가서 피킹을 한 후 간단한 게임과 간식을 먹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1명 당 10불이며 한명의 어른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9면으로 계속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RE/MAX

**Westwood
Medfield
Dover
Sharon**
(4곳 모두 학군 좋고 안전한 타운)

주택 구매와 판매
모두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Lisa Jung Nichols
REALTOR

RE/MAX DISTINCT ADVANTAGE
736 High Street, Westwood, MA 02090
Office: (781) 326-9200 Cell: (857) 225-0307
Email: Lisahnichols@yahoo.com

한 차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특별가 이벤트

나에게 노안이 왔다면?

박성진 원장님이 제안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 수술
이제 휴람을 통해 눈의 불편함을 해결하세요!

40대 50대도 가능한
라식/라섹!!!
지금까지 미룬 라식수술의
기회가 다시 찾아
왔습니다.



1 휴람 안 종합검진 (베이직 : 소요시간 30~40분 / 프리미엄 : 1시간 30분)

40대가 되셨나요? 눈도 풍겨릴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 1) 휴람 베이직 안검진 : **10만원** (10여 가지 검사)
 - 시력상대, 색내장, 녹내장, 망막이완이부 기본질환 유무 확인
 - 기본시력검사(안안, 안경치방, 타각력, 굴절력, 노안) + 색각동행시험, 안압, 안저촬영
- 2) 휴람 프리미엄 안검진 : **25만원** (50여 가지 검사)
 - 기타부터 시신경 병마 구비구적저자한 정밀검진, 2인마다 한면씩은 필요합니다.
 - 휴람 베이직+녹내장+색내장+안구진료증+시신경영양+기타안정밀검사 포함

2 노안 잡는 노인성 백내장 수술 (노안 + 백내장 해결)

오래 사용하신 노후된 백내장 수정체 대신 깨끗한 뉴-수정체로 바꿔 시력을 되찾으세요~
신문도 보고, 컴퓨터도 보고, 시원하게 쬐겨진 풍경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1) 노안교정 백내장 : **299만원** (양안)
- 2) 다초점 인공수정체 노안 백내장 : **700만원**

3 4060 노안 라식/라섹 수술 (양안)

휴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나요?
노안이 왔다 레이저 라식/라섹수술로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곳중엔 프레스비즈(노안 해결)

150만원 (프리미엄 안검사 포함)

4 2030 라식/라섹 **130만원** (DNA(10만원 상당), 안종합검진 포함)

※ 수술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안 라식/라섹은 당일 수술가능합니다.
※ 수술에 제한된 약값은 개인부담이며, 안종합검진 진료후 처방비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중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40~50대를 위한 라식/라섹이 필요한 경우?



**육아와 업무로
라식기회를
놓치셨다면...**

20~30대 여러가지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레이저를 이용
한 노안교정이 가능합니다.



**안경과 돋보기
사용이
불편한 경우**

책과 신문, 핸드폰등을
돋보기를 통해 봐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친구보다
노안이 빨리
온 경우**

나도 모르게 온 눈의
노화현상을
개선해 드립니다.



**백내장과 함께
노안 교정을
원하실 경우**

노안과 백내장이 함께 온 경우
[렌즈삽입수술]을 통하여 백내장
을 치료하고 노안도 개선 할 수
있는 수술방법입니다.



허오의료사업팀장 **김수남** ★ 무료 전화(Call for Free) ★
1-844-DO HURAM (1-844-364-8726)
카카오톡 :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s@huras.kr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CVS 신개념 의료 서비스 도입 예정

헬스허브 통해 일상에서 의료 서비스 병원 덜 가면 전체 의료 비용 낮아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수년 전 담배 판매 중단을 전격 결정했던 CVS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점포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헬스허브(HealthHub)' 라고 이름 붙여진 CVS의 새로운매장에서는 약사뿐만 아니라 영양사가 근무하고, 원격으로 고객들의 질병을 진단하는 시스템, 커뮤니티를 위한 장소 제공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4일 CVS는 헬스허브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CVS에서는 2021년까지 미국전역에 걸쳐 헬스허브매장을 1,500개 오픈할 계획이다.

CVS의 부사장인 알랜 로트빈 박사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곳이다" 라고 말했다.

CVS의 경쟁사인 월그린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실험 중에 있다. 월그린 일부 매장에서는 1차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영양사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실험하고 있다. 이런 시도들은 사람들이 건

강할 때 병원을 덜 찾게 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지불하는 전체 의료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가게 같은 곳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체 의료 비용을 낮추는 것은 이론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교의 아이브메호르트라 박사는 CVS에서 시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메호르트라 박사는 "환자들이 병원

대신 CVS를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느끼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로드아일랜드 운소켓에 본사를 두고 있는 CVS는 미국 전역에 9,8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CVS는 지난해 미국 최대 보험회사 중 하나인 애트나를 6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연방 정부에서 이 합의 내용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다.

CVS는 보험회사 인수 합의를 발표한 이후 고객에게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왔다. CVS의 헬스허브는 작년 부터 일부 매장에서 시범 운영되었다.

jsi@bostonkorea.com



CVS는 2021년까지 미국 전역에 걸쳐 헬스허브 매장을 1,500개 오픈할 계획이다



디지털 보정을 거치지 않은 광고를 할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보정 안한 광고하면 세금 공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 디지털 보정을 거치지 않은 영상이나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기업에 재정상의 혜택을 주는 법안이 상정되었다. 광고 모델의 신체 사이즈나 피부 색깔 등을 디지털로 보정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광고에 내보낼 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광고가 제작될 것이며, 이에 따라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화장품, 의류, 개인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디지털 보정을 거치지 않은 광고를 할 경우 최대 1만 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케이 칸 하원 의원은 "어린 청소년들이 디지털로 보정된 모델의 이미지에 무차별로 노출되어 있다" 며 "보정된 이미지는 비현실적이고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료,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자!

집장만
패밀리 프로텍션
모든걸 한번에!!

집장만 준비하는 성인
주택용자

모기지 리파이낸스 의료보험

생명보험 동상대출
나의노후?

캐쉬아웃 리파이낸스

연금보험

모기지 프로텍션
보험 최적의 사고보험

모기지 & 종합보험

마이클 리 컨설팅

978.314.8818

2 Adams Place, Suite 410 | Quincy, MA 02169

의사와 과학자 단체 마리화나 위험성 경고

인지능력 장애, 정신 질환 위험성
특히 10대 청소년들 심각한 위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대중들에게 마리화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리화나의 중독성과 마리화나로 인한 인지능력 장애, 정신 질환 가능성에 대한 대중들의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40명 이상의 의사와 과학자로 구성된 매사추세츠 예방 연합은 최근 매사추세츠 주의 마리화나 비즈니스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매사추세츠 주의 마리화나 정책이 주민들의 건강보다는 기업에 친화적이며, 마리화나를 다른 일상용품과 다름 없이 취급하고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리화나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젊은 나이에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악화되어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보고서는 일반 대중이 마리화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마리화나가 10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메스 메모리얼 헬스 케어의 사프다 메디나 박사는 십대 환자들이 마리화나에 중독되어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지능지수가 낮아지는 것을 보았다며 "이는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위험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마리화나는 30년 전의 마리화나보다 강력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마리화나를 즐겨 하는 청소년들의 약 25-50% 정도가 마약에 중독되고 있다.

매사추세츠 예방 연합은 정부가 나서서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마리화나의 위험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령 마리화나 금지 캠페인을 벌이면서, 마리화나 제품에 경고 문구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이 미국내 10번째로 빈대가 많은 도시로 선정됐다

보스톤, 미국내 10번째 빈대 많은 도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여름철 여행 시즌에 조심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빈대다. 특히 여행객이 많고 이사도 많은 보스톤도 예외는 아니다. 보스톤은 미국내 주요 대도시보다는 빈대가 적었지만 여전히 10위에 선정돼 빈대가 많은 도시 중의 하나로 꼽혔다.

빈대 퇴치업체인 터미넥스와 서비스마스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내 빈대가 가장 많은 도시는 필라델피아였다. 2위는 뉴욕, 3위 달라스, 4위 인디애나폴리스 순이었다. 주요 여행지인 LA는 6위, 워싱턴 DC는 8위, 시카고는 9위였다.

이번 빈대 많은 도시 순위는 2018년 한해동안 터미넥스에 걸려온 전화 수를 통해 산정했다. 빈대는 여행용 가방, 지갑, 자켓 그리고 기타 개인 소유물에 붙어서 옮겨간다. 특히 매트리스에 많이 붙어 살아 베드버그라 불리지만 천으로 된 가구와 가구 뒤 보드에 숨어 있기도 한다.

주 별로는 50개 도시 중 6개 도시가 상위 50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플로리다도 5개 도시로 2위를 차지했다.

시장조사 연구기관인 마루/블루(Maru/Blue)가 3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22%는 빈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약 48%의 미국인들은 빈대의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취해야 할 선제적 조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빈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

치다.

- 호텔 룸의 베드의 헤드보드, 매트리스 그리고 박스 스프링을 살펴 빈대나 또는 검은 피 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 다 자란 빈대는 사과씨 정도의 크기이며 새로 나온 님프들은 크림 색깔로 섀트 동전에 새겨진 글자만큼의 크기다. 이들은 빈대로 오염된 침대 베드시트의 접힌 부분이나 장식 부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 모든 옷을 걸어둔다. 침대에 걸치거나 가구에 두지 말아야 한다.

- 호텔에 비치된 가구 서랍장에 옷을 두지 않는다.

- 여행용 가방은 침대로부터 가능하면 멀리둔다.

- 여행에서 돌아오면 여행용 가방을 청소기를 깨끗이 배출하고 모든 옷은 뜨거운 물에 댄다.

- 여행 후 다음 여행 때까지 여행용 가방을 플라스틱 백 안에 싸서 봉인한 후 차고 또는 지하에 두고 가능하면 베드룸과 멀리둔다.

아래는 빈대가 많은 10대 도시다.

1. Philadelphia, 2. New York
3. Dallas-Fort Worth, 4. Indianapolis
5. Cincinnati, 6. Los Angeles
7. Cleveland, 8. Washington, D.C.
9. Chicago, 10. Boston

hsb@bostonkorea.com



마리화나를 사용할 경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악화되어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사시거나 파실때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해 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때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thepeterginateam@gmail.com



38노스, 북 영변 우라늄 농축 공장 가동 정황

"2~5월 '액화질소 운반' 추정 차량 드나들어"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에서 올 들어 우라늄 농축 공장(UEP)이 계속 가동돼온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5일 "올 2~5월 영변 핵시설 일대를 촬영한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 분석결과, UEP 주변에서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 및 출입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2월 16~17일쯤부터 우라늄 농축단지 서쪽 끝에 있었던 흰색 탱커 트레일러가 3월 27일쯤 현장을 떠난 뒤 단지 내 기체 원심분리기 인근엔 약 6m 크기의 화물 컨테이너 또는 실린더 추정 물체가 놓여 있는 것으로 포착됐다.

이후 지난달 9일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포착됐던 탱커 트레일러와 유사한 차량이 같은 장소에 나타났고, 또 10여명의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38노스는 해당 위성사진에 등장한 탱커 트레일러가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액화질소 운반용 차량일 것으로 추정했다. 즉, 액화질소가 단지

에 주기적으로 공급된 게 사실이라면 농축우라늄 생산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게 38노스 측의 설명이다.

38노스는 "그 외 영변 핵시설 내 5메가와트(MW)급 원자로나 실험용 경수로(ELWR), 방사화학 실험실 등에서 가동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38노스는 이번 사진에서 "그 용도는 알 수 없지만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RPF)과 인근의 다른 2개 건물을 연결하는 파이프로 새로 설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38노스에 따르면 RPF는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지만, 우라늄 농축과정에서 우라늄염을 육불화우라늄으로 변환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에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비공개 보고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이 정상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ys4174@news1.kr



북한이 올 들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 공장을 가동해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5일 밝혔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뉴욕사랑 제프 베조스 943억 맨해튼 아파트 구입

맨해튼 5번가 인근 아파트 3채 구매 계약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가 뉴욕 맨해튼에 있는 콘도형 아파트 3채를 매입한다. 뉴욕에 아마존 제2본사를 설립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거래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베조스 CEO가 시가 약 8000만달러(약 943억원)에 달하는 뉴욕 아파트 3채 구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조스 CEO는 맨해튼 중심을 가로지르는 5번가(fifth avenue) 바로 밑 매디슨 스퀘어 공원 인근에 있는 펜트하우스와 그 아래층 아파트 2채를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부동산사이트 스트릿이지에 따르면 3개 층으로 구성된 펜트하우스는 전용 엘리베이터와 넓은 테라스를 갖추고 있다. 아파트 3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합친다면 이는 총 면적 17만스퀘어피트(약 1579㎡)에 침실만 12개에 달한다.

베조스 CEO는 지난 몇개월동안 뉴욕 아파트를 사기 위해 물색해 왔다. 그는 지난 4월 맨해튼

에서 아파트를 물색하던 모습이 포착됐고,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뉴욕포스트에 "그는 다시 싱글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베조스 CEO는 지난 4월 25년간 가정을 꾸렸던 부인과 이혼했다.

이번 매입은 아마존이 뉴욕 퀸스 롱아일랜드 시티 부지에 제2본사를 설립하려던 계획을 철회한 지 약 4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베조스 CEO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벌리힐스, 워싱턴 D.C., 아마존 본사 인근인 워싱턴주 메디나 등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전 아내인 메킨지와는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뉴욕 아파트에 거주했다.

포춘은 "베조스 CEO가 첨단 기술이 발달한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비록 공식적인 본사가 없더라도 아마존이 뉴욕에서 더 큰 존재감을 떨치려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sy@news1.kr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2019 여름성경학교 (VBS)

"ROAR (Life is wild, God is good)"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여름성경학교(VBS)에 어린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 6월 20일 (목) ~ 22일 (토), 오전 9시 ~ 오후 1시
 장소: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
 대상: Preschool (3세) ~ 5 학년
 등록비: \$20 (두 자녀 \$35, 세 자녀 \$50), T-shirt 및 점심식사 포함
 신청문의: jsyslee@bu.edu / 617.372.2280
 온라인등록: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교회홈페이지(hanboston.org)에서 온라인등록을 받습니다.
 등록비(현금, 체크)는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 받습니다.

막힌 곳을 **확** 뚫어드립니다

부엌, 목욕탕 리모델링 전문

WATER HEATER, BOILER HEATING, FAUCET

www.massdrain.com | massdrain@gmail.com
617.645.6146

형제 떡집

GRAND RE-OPEN
 즉 재개업

영업 시간
 딜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STORE: 978.391.4695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중, 기업 · 관광객에 미국 여행경보 발령

유학경계령 이어 여행 경고까지... "미, 강도 · 총기사건 빈번" 외교부 "미 사법기관, 중국기업 빈번히 공격"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중국 정부는 4일 미국을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을 상대로 '미국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또한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최근 중국인 및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AFP ·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문화체육부는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미국에서는 강도 · 총기 ·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부는 이어 "관광객은 미국 방문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을 위해 의식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최근 미국의 법 집행 기관들이 중국 시민을 괴롭히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뉴욕 증권가의 중국 여행객들

중국인 유학생을 스파이 혐의로 조사하거나 비자를 취소하는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미국에 있는 중국인과 중국 투자 기관에 대해 보안경보를 발표했다"며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3일)에는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자국민 학생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유학 경계령'을 발령했다. 교육부는 최근 심화된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여파로 자국민들이 미국 유학 비자 발급 등의 과정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wonjun44@news1.kr

중 트럼프와 협상 포기하고 다음 정권과 할 가능성 커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렉스 틸러슨 전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협상을 포기하고 다음 정권과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틸러슨 전 장관은 국무장관 퇴임 후 첫 공식석상에 나타나 이같이 발언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는 세계적 회계법인인 KPMG가 휴스턴에서 주최한 콘퍼런스에 참석, "중국은 상호 존중과 윈윈하는 협상을 원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의 다음 정권과 무역협상을 하기를 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인 엑손 모빌의 최고경영자(CEO)를 하던 중 미국 국무장관에 발탁됐다. 이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길들이려 노력했으나 실패하자 지난해 해고됐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0년간 쌓아온 우방과의 관계를 좀먹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쌍방 협상을 고집함에 따라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해온 동맹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동맹이 굳건해야 미국의 힘이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이 많은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이 적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렉스 틸러슨 전 미국 국무장관



보잉 737맥스

중국 보잉 비행기 매입 중지할 듯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이 히토류, 기업 블랙리스트, 유학-여행 금지 등 다양한 대미 보복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내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잉 비행기 구매를 중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5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중국 항공사들이 정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며 보잉의 비행기 매입 협상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잉과 중국은 최신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와 777X 기종의 대량(100대) 판매 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이 정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며 협상을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협상이 중단된 것.

이번 협상은 약 3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보잉 비행기 매입 중단 카드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다. 중국은 보잉의 비행기를 연간 수백억 달러씩 사주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시장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20년대에

미국의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항공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보잉은 미중 무역전쟁을 가장 가슴 조이며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보잉의 최대 판매처이기 때문이다. 당초 중국은 미국과 무역갈등을 풀기 위해 보잉의 비행기를 대거 구매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격화되자 보잉의 비행기 구매를 중단하고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데니스 물러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한 항공컨퍼런스에서 "중국은 당초 무역갈등을 풀기 위해 보잉의 737맥스를 대거 구매할 것을 추진했으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737맥스가 사고를 일으키자 구매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잉은 737맥스기 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잉은 3월 10일 737맥스 사고 이후 주가가 18% 급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보잉 비행기 구입을 중단하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전했다.

sinopark@news.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Chelmsford Beauty Academy

로웰에서 5분, 로렌스에서 15분, 벌링턴에서 10분, 앤도버에서 10분 거리

- 경험있는 교사진
- 90% 주보드 시험 통과후 바로 취업
- 풀타임 및 파트타임
- 매달 속눈썹 연장, 속눈썹 리프트, 눈썹 문신 훈련 클래스



뷰티 아카데미 수업 내용 및 시간

에스테틱스: 600시간

페이셜, 왁싱, 메이크업, 속눈썹 연장 등 포함

매뉴큐어리스트 : 100시간

매니큐어, 페디큐어, 아크릴릭 젤, 디핑 파우더 등 포함



60 Chelmsford st #2, Chelmsford MA 01824
978.250.4488 978.987.3766

특스베리 소재 성업중인 네일살롱에서 네일 테크니션 구인중
주급 \$800-\$1000
978.967.6695, 978.987.3766

2개 대형 네일살롱 세일중
12개 스파 페디큐어, 10개 매니큐어 테이블
2 페이셜+ 왁싱 룸, 월마트가 있는 대형 플라자 내(가격 16만불 이상)



크라우저 &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개인상해법 전문

- ✓ 전문인력 취업비자(H-1B)
- ✓ 투자비자(E-2)
- ✓ 주재원 비자(L-2)
- ✓ 투자이민(EB-5)
- ✓ 특기자 비자(O-1, P-1)
- ✓ 가족초청이민
- ✓ 단기연수원비자(H-3)
- ✓ 시민권 신청
- ✓ 취업이민
- ✓ 주방재판
- ✓ 교수/연구직 이민
- ✓ 개인상해(교통사고)



▶ BOSTON Office Tel. 617-566-7979

1309 Beacon Street Suite 300 Brookline, MA 02446 Fax. 617-566-7982

▪ Email : info@stevesuh.com ▪ 홈페이지(국문/영문/중문) : stevesuh.com / suhlawyer.com

▶ MIAMI Office ▪ Tel. 305-372-7776 ▪ 28 W Flagler St Suite 330 Miami, FL 33130

맥주 신르네상스 시대 열리나, 해외 브랜드 맥주 다시 한국에서 생산 검토

메이드인 코리아...오비맥주, 해외 맥주 국내 생산 검토 맥주업계 공장가동률 ↑,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커져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맥주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가 바뀌게 되면서 '맥주 르네상스 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오비(OB)맥주를 비롯한 상당수 업체들이 세금 문제로 해외 브랜드 맥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했다. 하지만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내 공장에서 해외 브랜드 맥주를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과세 불평 등 문제가 사라질 경우,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도 한국 생산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미 오비 맥주도 해외 수입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종가세 위주의 현행 주세법을 고쳐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이 발표되자 국내 맥주

사들은 해외 브랜드의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본격 검토에 나섰다.

국내 1위 맥주회사인 오비맥주는 주세법 개정과 동시에, 주요 글로벌 맥주 브랜드의 국내생산 확대 계획을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생산의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선 국내 인기 수입 맥주 브랜드인 버드와이저·호가든·스텔라아르투아·코로나 등을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한 시설 확충에 나선 계획이다.

현재 오비맥주는 버드와이저와 호가든의 일부 병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판매량이 가장 많은 캔 제품의 경우 2년여전부터 전량 수입으로 전환한 상태다.

하이트진로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린 등 글로벌 브랜드와의 합작을 통해 수탁 생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주류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FTA)이 체결되지 않은 아사히 등 일본 브랜드를 충주 제2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 또 협력 중인 몰슨 쿼스 브랜드의 생산기지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이다.

이외에 미국 유명 수제맥주 회사인 브루클린 브루어리도 종량세로 전환되면 국내에서 직접 맥주를 생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량세가 도입된 후 해외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하면 수입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품질 유지와 지리적 근접성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내 생산 맥주의 경쟁력이 수입보다 낫다는 것.

또 국내 맥주 공장의 가동률이 40%를 밑도는 상황에서 추가 생산 여력도 충분하다는 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량제 전환의 가장 큰 효과는 국산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회복이 아니라 글로벌 인기 브랜드의 맥주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



건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한국이 경쟁력 있는 맥주 생산기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거에도 해외 유명 맥주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한 사례가 있었다. 오비맥주는 1981년부터 1987년까지 하이네켄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레펜브로이를 생산했다. 하이트(조선맥주)는 1986년부터 약 10년간 칼스버그를 제조해 판매했다. 그러나 세금 불이익으로 인해 현재는 모두 한국을 떠나 해외생산체제로 바뀐 상태다.

국내의 맥주 생산에 따른 순수 생산 유발액은 연간 2조1615억원이다. 올해 맥주 생산과 관련된 고용인력은 협력업체 종사자 등 2만여명 선으로 추정된다. 종량제 도입으로 국내 생산 라인의 가동이 늘어난다면 이득이 크다는 평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종량제 전환이 맥주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수 있다"며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의 한국 생산이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eon@news1.kr

본국 미·중 무역전쟁 불똥...반도체·무선장비 수출 20% 감소 전망

한경연, 6개 수출 주력업종 하반기 전망 조사 평균 11% 감소,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해야"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반도체 등 6개 수출 주력업종의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6개 수출 주력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하반기 수출 전망 및 통상환경 점검 간담회'에서 이같이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6개 수출 주력업종은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선박 △자동차 △철강 등이 다.

한경연은 "전망치대로라면 6개 수출 주력업종의 올해 하반기 수출액 합계는 120억달러로 지난해 하반기 수출액 합계 135억달러보다 149억 달러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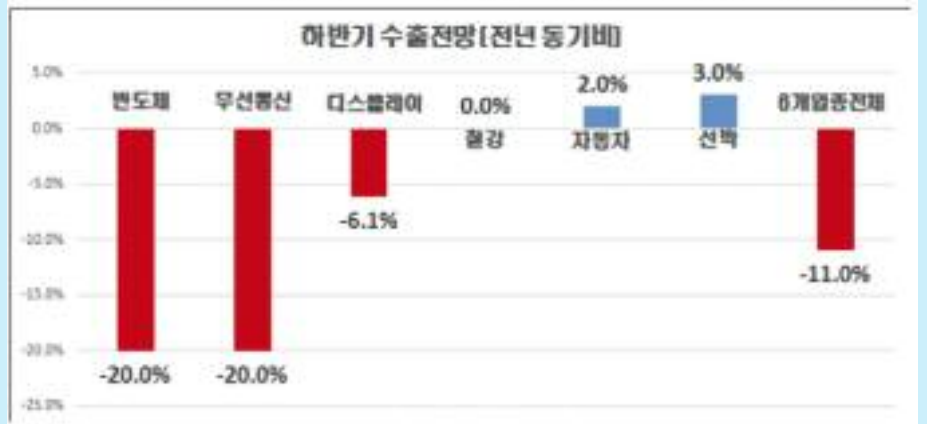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업종은 △반도체 -20.0% △무선통신기기 -20.0% △디스플레이 -6.1%로 나타났고, 수출증가 또는 보합세가 예상되는 업종은 △선박 3.0% △자동차 2.0% △철강

0.0%로 조사됐다. 하반기 중 수출 부진 업종별 원인으로는 반도체의 경우 2018년 역대 최고급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가 제기됐다. 무선통신기기는 국내 생산공장의 해외이전, 미·중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대중국 무선통신기기 부품판매 저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수요 정체 등을 수출 부진 원인으로 꼽았다.

수출 증가 업종별 원인으로는 선박의 경우 2017년 수주 선박의 본격 인도와 한국 주력업종인 LNG, 초대형 원유운반선 수출 호조를 들었다. 자동차는 상반기부터 시작된 국내 주요 업체의 실적 상승 지속 등이 거론됐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될 경우 업종별로 연간 수출액은 1% 미만~10%가량 감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10% △무선통신기기 -5% △자동차 -5% △선박 -1% 미만이다. 다만, 철강은 중국에 대한 수출물량이

구분	반도체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선박	무선통신기기	합계
2018년 下	65,440	20,608	17,185	13,549	10,462	8,361	135,605
2019년 下	52,352	21,020	17,185	12,723	10,776	6,689	120,745
증감률	-20%	2%	-	-6.1%	3.0%	-20%	-11.0%



한국경제연구원 하반기 수출 주력업종 수출전망

매우 작아 미중 무역전쟁이 연간 수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 협회 정책담당 부서장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의 우선순위를 △수출품목·지역 다변화 △생산시설 현지화 △수출국 무역정책 검토 △품질·디자인 향상 순으로

꼽았다. 정부 지원과제의 우선순위는 △무역 분쟁 정보공유 및 기업과의 공동대응 △보호무역 최대 당사국인 미·중과의 공조 강화 △통상전문인력 확충 및 조직역량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ryupd01@news1.kr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JUNE 7th - JUNE 13th, 2019

SINIGANG PORK SPARE RIBS

LEARN HOW TO MAKE THE TRADITIONAL FILIPINO DISH: SINIGANG, ALMOST TASTES LIKE KIMCHI STEW!
 적당히 시큼하고 달짝지근한 맛의 필리핀 전통요리 시니강과 갈비의 만남!
 시니강 갈비탕을 H마트와 함께 만들어 보세요! Follow us @hmartofficial

NEW RESTAURANT PARTNERS WANTED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관심으로 성공영업을 원하는 분은 지금 연락주세요! CONTACT: me@hmart.com

 Seedless Watermelon 씨없는 수박 \$5.99	 Korean Melon 참외 \$16.99	 Korean Singo Pear 한국산 신고배 \$22.99	 Honey Ataulfo Mango 허니 아탈포 망고 \$10.99	 Crown Broccoli 크라운 브로콜리 \$1.49
 Kabocha 단호박 \$0.88	 Stem Tomato 스텝 토마토 \$0.99	 Lotus Root 연근 \$1.99	 Gobo 우엉 \$1.99	 KTOWN Tofu 케이타운 두부 \$0.99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Boneless Beef Strip Loin Steak-New York 새관 스테이크 \$16.99	 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돼지 등갈비 \$3.99	 Belt Fish 냉동 갈치 \$3.99	 TONGTONGBAY Salted Mackerel Fillet 통통배 데 맛있는 고등어 \$5.99
 Bone-in Pork Picnic Roast 돼지 앞다리 로스트 \$1.99	 Whole Chicken 통닭 \$1.79	 TONGTONGBAY Small Octopus 통통배 심성낙지 \$9.99	 Head-on Shrimp 머리 새우 \$5.99
 Thinly Sliced Beef Brisket for Shabu Shabu 샤브샤브용 냉동 차돌박이 \$8.99	 Marinated Sliced Beef Short Rib-LA 양념 LA갈비 \$11.99	 Smelt Fish 냉동 병어 \$3.99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6.99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KAGAWAKI California Premium Short Grain Rice \$21.99	 CJ Cooked White Rice \$9.99	 KADOYA Pure Sesame Oil \$12.99	 AFRIZONA Honey Powder 2\$5	 HARU Medium Grain Mild Rice \$9.99	 CHUNGJONGNE Sweet Potato Glass Noodle \$7.99	 SHIRAKUJI Tomoshiraga Somen \$3.99	 HAIDOREM Japanese Style Buckwheat Noodles \$3.99	 SWS Pure Sesame Oil \$5.99
---	---	--	--	---	--	--	--	--

종가집 ENJOY KOREA'S FAVORITE KIMCHI HERE IN AMERICA!

100% 한국산 재료로 정성껏 만든 대한민국 대표김치, 종가집 김치!

 YAMASA Soy Sauce \$3.99	 DANYA Soba Sauce \$3.99	 JEJUNFARM Green Tangerine Tea \$2.99	 HAIDOREM Ba Top Shell \$4.99	 CALBEE Fruit & Granola \$6.99
 ITOEN Mugicha Barley Tea \$3.99	 DR CHUNG'S Vegemil (Almond & Walnut Black Bean Soy Milk) \$12.99	 KHALS Tofu Food Dehydrated (Round) Tofu \$27.99	 Blue Mug Set \$11.49	 COOK KIT Rice Gripper \$0.99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akes/mis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RT BURLINGTON STORE |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9am - 9pm / Fri - Sat: 9am - 10pm

황교안 취임 100일 성적표...보수결집 성과, 확장성 한계

보수층 결집에는 성공... '외연확장'에는 여전한 의구심 총선 '진영대결' 염두...청년 교두보;중도층잡기 본격화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와 한국당이 얻게 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황 대표는 지난 2·27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수장으로 선출된 직후 예상보다 빠른 시간내 당내 입지를 구축하고, 강력한 대외투쟁을 통해 지리멸렬했던 한국당을 정상궤도에 올렸다. 본인 또한 야권 유력 잠룡으로서 확고히 자리 매김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 직후부터 펼친 전국순회 민생대장정, 광화문 대규모 집회 등 황 대표가 취임 직후부터 강경 장외투쟁을 선봉에서 이끌며 전통 보수정당이자 원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한층 끌어올리는 성과를 단기간에 냈다는 견해가 정치권에 선 지배적이다.

이를 통한 지지층 결집으로 한국당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한국당의 고질 병인 계파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리더십 구축에도 성공했다는 견해가 나온다.

반대로 전통 보수지지층, 이른바 '집토키'를 다시 불러들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외연확장, '산토끼'를 잡는 데는 한

계를 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권잠룡인 황 대표의 확장력에도 의구심을 표하는 시선도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좌파독재' 등 장외투쟁에서 내세운 강경 발언과 기조들이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5·18평화와 막말, 우경화 논란 등과 맞물려 중도층의 외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발표한 주간 정당지지도 집계 결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30.0%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지난 5월 2주차 34.3%로 정점을 찍고 5월 3주차 31.1%로 다시 하락한 이후 5월 5주차 30.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의 지지도가 '정상화' 국면, 즉 한계치까지 올라간 이후 제 지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분석과 막말 논란 등 최근 잇따른 악재 등으로 '조정' 국면에 처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행보에 따라 그 이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대권잠룡인 황 대표의 지지율도 관심을 끈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발표한 5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황 대표는 지난 4월보다 0.2% 오른 22.4%로, 여권 잠룡인 이낙연 국무총리(20.8%)와

함께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점은 범진보·야권 후보군을 모두 합친 선호는 49.4%에 비해 범보수·야권 주자군은 41.3%로 여전히 뒤쳐지지만 양측의 격차는 8.1%p로, 올해 최대격차(20.6%p, 범진보 56.4%-범보수 35.8%)를 기록한 불과 한달 전 4월 조사결과보다 급격히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한대치로 인해 양대 진영·이념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고, 유권자들 또한 양진영을 축으로 결집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황 대표 또한 이를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 견해도 있다. 2022년 대선을 바라보는 황 대표는 이보다 2년 전 열리는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통련'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 각 진영, 세력이 난립해 있다가도 총선 등 주요선거에서는 양대 진영 간 싸움 양상으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전통 지지층을 기반으로 진지를 구축한 후 여권진영과 중도층 표심 확보 싸움에 나서는데 이 효과적 전략이 될 것이라고 황 대표가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3차 장외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황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재영입과 친(親) 청년·여성 정당화 등을 총선승리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청년층을 겨냥한 컨셉의 에세이집, 영상 등을 준비하는 등 중도층 잠식의 교두보가 될 청년·여성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황 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5일 저녁 진행하는 100일 기념 토크콘서트의 제목 또한 '황교안X2040 미래찾기'이다.

한편 인용된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것이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5.9%다.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4일 발표한 것이다.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5.5%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sgkk@news1.kr

여, 양정철 광폭행보 놓고 내부 기대감...친문 패권 우려도

박원순·이재명 이어 김경수·오거돈 만남 "킹메이커 능력 탁월"... "개별적으로 우려 전할 것"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광폭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 양 원장의 활동이 내년 총선에서의 득실 여부와 관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해외를 떠돌던 양 원장은 민주당에 복귀한 이후 세간의 이목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국가 의전서열 2위인 문화상 국회의장을 독대한 데 이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여권의 대권 잠룡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하루새 연이어 만났으며, 오는 10일과 11일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을 각각 마주할 예정이다.

양 원장은 이러한 만남을 사적만남 또는 싱크 탱크 차원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신 노릇'이

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야권뿐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양 원장의 행보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총선에서 후방을 지원하는 '병참기지'로 민주연구원을 이끌겠다는 양 원장의 활동이 결국 득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친문 패권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양상이다.

양 원장에게 기대감을 품은 이들은 그를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 탁월한 전략가로 여기고 있다. 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섰던 '킹메이커'로서의 이력이 있을뿐더러 평소 양 원장의 식견이 남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최근 뉴스과 만나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스과 만나 '양 원장의 행보를 당내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양 원장에게 우려를 전하지 않겠느냐'고 애들러 답했다.

반면 양 원장의 행보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이 20대 총선에서 패배한 요인 중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경기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의 공동연구협약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나였던 '진박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원장이 맡은 역할이 내년 총선 승리를 지원해 문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곁들여지면서, 그가 내년 총선에서 '진문'을 가리는 문지기가 될 수도 있

다는 우려로 읽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뉴스과 만나 '양 원장의 행보를 당내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양 원장에게 우려를 전하지 않겠느냐'고 애들러 답했다. soho0902@news1.kr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OUR AGENTS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전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줄리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크리스틴 손
773.968.2651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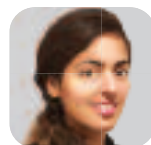
미니 유
617.803.1266
miniee@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최은경
781.690.4389
chrischoi@bostonpremierrealty.com

OUR LISTINGS



● 세탁소 매매

보스톤남쪽, 타운센터에 위치한 Full Plant. 안정된 고객과 매상. 소유주 은퇴. 하이드로카본.

Asking \$300,000



● Fish마켓 매매

성공한 한인들의 발판이 되었던 비즈니스 보스톤 남쪽 변화한 몰에 위치. 연매상 450K 이상. 넓은 주차장. To-go 메뉴로 Extra 수입.

Asking \$140,000



● 커머셜 빌딩

보스톤 북쪽 시티에 위치 메인 스트리트 선상, 주요 체인점들 주변 "매상높은" 세탁소 비즈니스 포함

Asking \$990,000



● 식당 매매

Hibachi 테이블 & 스시바 풀 리퀴 라이센스, 2500 스퀘어피트 보스톤 북쪽에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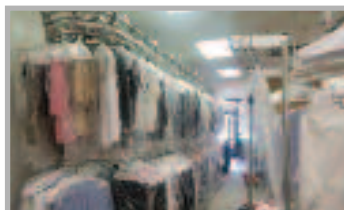
Asking \$7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교통량 많은 메인 스트리트에 위치 안정된 고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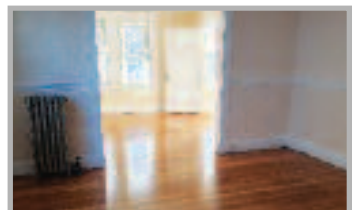
Asking \$40,000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남쪽, 좋은 위치, Tailoring 수요 높음 대형 미국 체인점 주변 안정된 인근 여러 타운의 고객 확보

Asking \$50,000



● 주거렌트

에버렛에 위치, 1125 Sq. Ft, 2 Beds & 1 Bath, 새로레노베이션된아파트 주차가능, 보스톤에인접, 단기렌트가능

Asking \$2000/월



● 리테일 가게 매매

대형 아시안 슈퍼마켓내에 입점 연중무휴로 바쁜 가게, 안정된 고정 매출 업종 변경 가능

Asking 가격 문의 바람



● 드랍오프 세탁소

보스톤 북쪽 좋은 위치와 저렴한 렌트비 안정된 고객과 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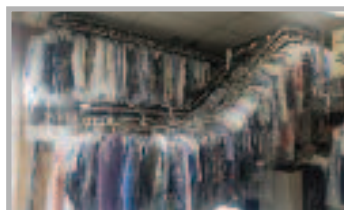
Asking \$50,000



● Take Out Seafood 튀김 가게

보스톤 환승 스테이션 위치, 특점 상권 종일 바쁜 가게, 매상 50% 순수익, 연매상 \$300,000이상

Asking \$150,000



● 세탁소매매

보스톤북쪽에 위치, Full plant 세탁소 안정된고객과매상

Asking \$165,000



● 세탁소 단독건물 매매

보스톤 인근에 위치, 안정된 매상, 좋은 위치 및 개발중인 Complex 인근에 위치

Asking \$1,095,000

유시민 · 홍준표 등 장외 인사 부각 이유는...정국경색 영향?

제도권 정치에 대한 실망...외부서 대안 모색 분석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차기 대선이 3년이나 남았지만 유독 장외에 있는 대선잠룡들이 꿈틀거리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모인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탓에 국민들이 새로운 대안을 밖에서 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의 합동 유튜브 방송이 4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전날 진행한 이들이 합동방송 프로그램 제목인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를 비롯해 유 이사장과 홍 전 대표가 주요 포털 검색어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들의 합동방송은 전날 밤 10시가 넘어 공개됐지만 수많은 시청자들이 몰렸다.

유 이사장은 자신에 대해 정계은퇴

를 선언하고 관중석에서 정치를 바라보는 '관중', 홍 전 대표는 '불펜투수'를 자처하고 있지만 이들은 장외에 위치한 여야의 유력 대선 잠룡으로 꼽힌다.

이들 뿐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를 잇달아 면담하는 등의 광폭 행보도 주목을 끌었다. 일각에선 양원장의 역할에 대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의 키페이커로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여론이 장외에 있는 이들을 호출하거나 주목하고 있는데는 정치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민생입법 등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자 국민들이 현재 제도권 정치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장외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한중진 의원은 최근 뉴스1과 만나 정치권의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국회가 스스로 변해야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지않는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도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에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정국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협상의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한국당에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로 다소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 때문에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여의도 정치권을 엄습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 만나 "협상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브로 '홍카레오(홍카콜라+알릴레오)'를 통해 토론하고 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정국 정상화에 모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전인 7일 여야 5당 대표들과의 회동과 동시에 한국당 대표와의 단독회담을 진행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

는 사실상 거절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가 실종되고 장외가 부각되는 현상에 대해 "결국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의 회동 제안을 받고 민주당 역시 조금 더 야당을 겨냥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goodday@news1.kr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오찬회동을 갖고 있다

돼지열병 북한내 남하 첩보 이해찬-외교·안보장관 회동

한미정상회담·대북 지원 등 현안 논의

(서울=뉴스1) 정연주, 이우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과 대북 식량 지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찬 이후 브리핑에서 "최근 현안에 대해 이 대표가 질문하고 장관들이 답변하는 식이었다"며 "(이 대표가) 대북 식량 지원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김연철 장관과 대북 식량 지원 및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방역문제를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한 내에서 남쪽으로 조금 확산했다는 첩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자강도가 북한에서도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발생한 돼지열병이 북한 내에서 조금 남하하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접경지

역을 통한 남측으로 돼지열병이 넘어올 것에 대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특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강경화 장관과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강 장관이 현장에서 직접 점검한 내용을 이 대표에게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만간 북유럽 방문과 관련해 출국하시는데, 현장에서 강 장관과 만나는 듯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강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도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전후로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며 "최종적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은 최근 전작권 이전과 관련해,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 준비 상황,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내용에 대한 간략히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찬 회동은 전날 사회 분야 장관들이 이은 두 번째 회동이다. 이 대표는 4일부터 25일까지 총 18개 부처 장관을 만나는 '릴레이 오찬'을 한다. jyj@news1.kr

정부, '대북 식량지원' 국제기구 통해 800만 달러 확정

교추협 의결...WFP에 450만 달러·UNICEF에 350만 달러 지원 국제기구 공여 방식으로 대북 식량지원 개시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사업을 본격 개시했다.

통일부는 5일 "국제기구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안건이 이날 오후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제305차 교추협 서면 심의를 통해 논의됐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인 교추협은 정부 위원 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5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상임위원회를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800만 달러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통한 공여 방식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대북 식량지원 방안으로 논의된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 중 간접지원 방식을 먼저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날 교추협 의결에 따라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양지원 사업에 45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

WFP의 대북 영양지원사업은 9개도 60개군의 타카소, 고이원, 소아병동의 영유아, 임산부 등에 대한 영양 강화식품 지원 사업이다. 정부의 지원금은 식품 재료 조달과 사업 수행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유니세프(UNICEF)의 모자보건 및 영



WFP(세계식량계획) 서울 사무실

양사업에는 350만 달러가 지원된다. 아동, 임산부, 수유부 등을 대상으로 치료식과 기초 필수 영양품 키트, 미량 영양소 복합제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UNICEF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은 보건 및 영양 분야 물품 조달과 사업 수행비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지원 방식은 정부가 국제기구에 현금을 송금한 뒤 각 국제기구가 자체 구매 절차를 통해 물자를 구매해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대북 인도지원은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국제기구에 대해 800만 달러의 지원을 통한 대북 공여 방식 지원 방침을 밝힌 뒤 한 차례 무산됐다 재추진된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유엔을 통해 식량난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지원은 이에 대해 호응하는 차원으로 진행된 것이다.

정부는 다만 대북 직접 지원을 포함한 추가적인 식량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eojiba3@news1.kr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 휴람은 상담-예약-검진진행-사후관리를 보호지역행로써 도와드립니다.
** 지금 상담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검진을 결정해 보세요!!



휴람 건강검진 이벤트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 (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 (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 (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 (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 4시간 :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부인과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60만원 ~

- 당일종합검진 +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9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남] 경동맥초음파, 뇌MRI, 뇌MRA
- 숙박종합검진 + [여] 뇌MRI, 뇌MRA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후 ~ 명일 12시경 퇴원 : 225만원 ~

- 숙박종합검진 + 뇌MRI, 뇌MRA, 심장 CT, 심장 초음파, 갑상선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 [남] 갑상선초음파 [여] 폐CT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 당일 오전 ~ 명일 12시경 퇴원 : 370만원 ~

- VIP종합검진 + PET-CT, 복부초음파, 호르몬검사, 호모시스테인(중풍, 심혈관질환 인자)

휴람건강검진 네트워크 병원

휴람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중앙대학교병원(동작구 흑석역) / H+양지병원(관악구 신림역)
- 세란병원(종로구 독립문역) / 강남지인병원(논현동 혁동역)
- 강남병원(용인시 신갈동 기흥역)

* 프로그램에 따라 픽업서비스, 물품셋트, 주동을 제공합니다.
* 심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상황별 맞춤형 종합검진

계절적 요인부터 가족력까지 다양한 위험 요인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 큰 일교차, 황사부터 가족력까지 건강에 빨간불 들어올 수 있어
-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 발견을 넘어 예방까지 가능



과거에 개개인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가족력, 영양상태 등이었다면, 현대에는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더해져서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들로 자리잡고 있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늘어난 만큼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 역시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질환의 조기 발견을 넘어 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정기적인 건강상태 체크이다. 질환에 따라 초기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거나 우리가 일상생활 중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이 동반되어 의도치 않게 질환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기적인 건강상태 체크가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건강검진이다.

현대인에게 있어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적인 요소로 잡아가고 있다.

검진 항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질환에 차이가 있고, 개개인의 생활환경이나 가족력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검진 선택 또한 중요하다.

이제는 대표적인 예로 자리잡은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도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었으나 검진의 결과와 가족력 등을 토대로 유방 절제술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으며, 이는 국내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발표에 따르면, 유전성 유방암 유전자 검사 건수는 2010년에서 2017년까지 7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하였고, 유방절제술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4년새 약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람 네트워크 세란병원 종합검진센터 임준섭 센터장은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 이외에도 봄이면 큰 일교차와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및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

다는 보고가 있는 것처럼 개인의 상황별 환경, 가족력 등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바꾸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다” 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목 이외에 개인의 상황별 맞춤형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이어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환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고령이라면, 잊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

하다” 고 조언했다.

"건강검진"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스톤코리아(617-949-1766)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고국 방문 의료 상담 및 예약, 의료관광 휴람의 전반적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보스톤코리아 전화 617-949-1766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Susan Ahn 부동산

한인대표 에이전트 #1

고객들의 끊임없는 추천이 증명하는 실력, 신속 정확한 일처리

MULTI MILLION DOLLAR SALES. TOP PRODUCER #1 AGENT



보스톤 최고 명성의 부동산 회사 Centre Realty Group에 소속되어 있고, 20년 넘는 미국 생활과 부동산 노하우로 부동산 구매, 매매, 투자건물, 렌트를 찾아 드립니다. 한국에 계시는 고객은 계약을 하고 바로 입주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Cell: 339.224.1512

Kakao ID: susan1223
Email: susan.ahn@centrerealtygroup.com

1280 Centre St.
Newton, MA 02459





• 미주 최대 한인 부동산
•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뉴스타 JBL부동산

Newstar JBL Realty in Boston



잘 하겠습니다!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FEATURED LISTINGS (문의: 애나 정 617.780.1675)



East Cambridge New condominium에서 편리하고 멋진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55세대 Residential 7층 건물. 2bed만 Available. 입주와 투자용으로 최고의 위치 Lechmere 0.3miles MGH 1.5 miles Harvard University 2miles

ASKING \$899k - 1199k






Woburn's Newest Luxury farmhouse Condominium (Townhouse)에서 전원생활을 즐길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112세대, 1층 9 foot ceiling과 open concept floor plan. 2bed, 2bath이상

ASKING \$600,000-\$800,000

주택매매 전문, 상용건물, 투자, 사업체 아파트렌트, 부동산개발 투자상담 환영

금주의 LISTINGS

 <p>보스톤 북쪽 세탁소 매매 30년 이상된 대형 몰안에 위치. 고정 고객과 안정된 매출. 하이드로카본. Full plant.</p> <p>ASKING \$19,9500</p>	 <p>보스톤 남쪽 성업중인 세탁소 매매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99,000</p>	 <p>단독 건물 매매. 세탁소 포함 오너 파이낸싱 가능 보스톤 남쪽</p> <p>ASKING \$480,000</p>
 <p>보스톤 남쪽, 세탁소 매매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60,000</p>	 <p>Belmont 성황중인 Nail salon 주인 리타이어, 6 manicure, 6 pedicure, unlimited potential</p> <p>ASKING \$150,000</p>	 <p>새로이 설립되어 성업중. 무한한 가능성. 알링턴 Nail Salon & Spa</p> <p>ASKING \$375,000</p>



WE ARE RECRUITING NEW AGENT
NOW HIRING




뉴스타 JBL 부동산과 함께 하실 새로운 가족을 찾습니다.

애나 정 617.780.1675 오성빈 978.505.3736

SOLD

1. 퀴지 마리나 베이 고급 1 B/R 콘도 **SOLD**
2. Condominium in Billerica 3 B/R, 2 Bath, \$280,000 **SOLD**
3. Drop Shop in Somerville \$30,000 **SOLD**
4. Condominium in Andover, 3 B/R, 2 1/2 Bath **SOLD**
5. Nail salon in Dedham **SOLD**
6. Brighton 1 Bedroom condominium **SOLD**
7. Dedham Single Family House, 6 Bed/4 bath **SOLD**
8. Boston Fenway Condominium, \$668,000 **SOLD**
9. Arlington Single Family House, \$1,495,000 **SOLD**
10. Quincy Single Family House 4 Bedroom **SOLD**
11. Dedham Single Family House \$745,000 **SOLD**
12. Drop shop in Newton \$49,000 **SOLD**

LISTINGS

 <p>North Andover 성업중인 풀 플랜트 세탁소</p> <p>ASKING \$130,000</p>	 <p>보스톤 서쪽 네일샵 안정된 수입, 고정손님 확보</p> <p>ASKING \$170,000</p>	 <p>캠브리지 비어 와인 팩캐지 store</p> <p>ASKING \$200,000</p>
--	--	--

정준기 원장 교육 칼럼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명문 대학 입학 결과 분석 (Class of 2023) (4)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는 총 21,312명이 지원하여 1,410명이 합격하여 6.62% 입학률을 보였다. 이중 조기 지원자는 총 9600으로 707명이 합격하여 7.36%의 합격률을 보였고, 정시 지원은 11,712명이 지원하여 703명이 합격 6%의 합격률을 보였다. 50개주, 67개 국가, 1000개 고등학교에서 입학생들을 배출하였다.

MIT는 명확한 입학 기준이 있기에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 입학은 힘들지만 준비는 명확한 학교이다. 도전적인 과목 수강, 높은 인품(High Character),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장소를 만들기 위한 유용한 아트, 과학, 그리고 기술을 사용하여 MIT의 미션에 잘 맞는 학생들을 선발을 한다. 다시말하면, 깊고, 전문적인 관심 분야가 있어야하고 리서치와 경시 대회 입상이 있다면 입학 확률이 높아 질 수 있다.

미국내에 아이비리그, MIT, 스탠포드 이외에도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있다. 하지만 이 지면을 통해 위의 10개 대학들을 종합 분석 하면 앞으로 어떻게 미국 최고 대학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거라 생각 된다.

요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사람들이 소형 컴퓨터(스마트폰)를 들고 다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보가 다 믿을만한지, 또한 주변 지인의 자녀들이 우수한 대학에 갈 경우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자신의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많은 학원과 유학원들이 있고 이들이 제시한 불법적인 스펙 쌓기, 거의 대필해서 역사 논문을 Concord Review 실을려고 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 형식적으로 준비해 포장하여 과학 경시 대회 참여 예를 들면 인텔, 구글, JSHS등, 깊게 참여하지 않았는데 논문에 공저, AP 시험 개수를 많이 보이게 하거나 수감 하지도 않고 많은 AP 점수 제출, SAT 1, 2 그리고 ACT 점수 채팅(Cheating), 시민권자가 입학에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학생과 부모가 미국 주소지 사용(실제 거주하지 않고 또한 부모님 직업이 한국에 있는데도), 학생의 흥미와 관심 보다 유명한 대학에서 서머하면 대학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 유명 대학 서머 참여, 에세이 잘 쓰면 입학에 유리하다고 판단 무조건 유명하고 명문 대학 졸업생이나 학생들과 비싼 돈주며 에세이 작업(에세이는 18-19세 수준에 맞는 학생들의 생각을 보는 것에 불과하지 에세이 잘 쓰면 입학에 도움이 된다 는 생각은 사실과 다르며 성적이 나쁜 사람이 에세이 잘 쓰면 성적이 보장 될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사실이고 에세이는 학생의 또다른 하나의 활동이며 성향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치 에세이 잘 쓰면 입학에 큰 도움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미국 어드미션 결정 과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쓰라고 하는게 아니라 학생의 목소리를 학생이 직접 쓰는것이 가장 좋은 에세이이다

), 마치 유명 서머 참여가 명문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고 판단 비싼 돈을 주면서 까지 미국 유명 수학 캠프 준비(PROMYS at BU, ROSS at OSU, SUMaC at Stanford)(원서 상에 있는 수학문제 풀이와 간단한 논문 작성 등 학생 실력과 상관없이 풀어주고 준비해 주면서 거액을 들여 하는 경우)등의 경우를 많은 미국 대학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한국 학생들의 입학 기준이 까다롭고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들도 종종 보고 있다.

미국 명문 대학 진학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희망일 것이다. 하지만 불법적인 요소, 적당히 속이려는 자세로 원서를 쓰거나 스펙을 꾸면 내는 것은 오히려 입학에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 하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 명문 대학 입학 스캔들로 인해 많은 대학들이 확인하고 또 확인 하는 입학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이는 더 엄한 잣대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명문 대학 입학이 조금은 돈과 입학이라는 상관 관계가 있는 것 처럼 보여져서 많은 명문 대학들이 재정보조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더 많은 입학 기회를 주고, 부모님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의 대학 교육 기회 확대(First Generation)를 통해 미국 명문 대학이 절대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란 점을 강조 하였고, 인위적인 준비 보단 자연스럽게 학생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흥미와 공헌등을 깊게 확인하고 평가한 해였다. 그로인해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자신의 색깔이 없는 경우 입학이 거절되는 현상이 벌어진 해이기도 하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1. 원서상 에세이 대필 금지
2. 스펙을 위해 불법적인 활동 금지: 가짜 리서치, 인턴십, 시험 유출된 문제를 통한 각종 경시 대회 입상
3. SAT 1, 2, AP 점수 향상을 위해 부정행위 금지: 대학측이 알게 되면 미국 대학 입학 불가
4. 서머 입학을 위해 부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합격한 경우: 학원과 유학원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도움 주는 것
5. 가짜로 스펙 만드는 것 금지: 학교내,외 활동이 균형이 잡혀야 하는데 학교밖 가짜로 만든 활동만 많은 경우
6. 잘 알지도 못하는 유명인들 추천서 요청
7. 가능하면 세번 이상 SAT 1 시험 보지 말 것
8. 학교에서 정학, 퇴학등의 기록을 만들지 말 것
9. 소셜미디어에 부정적인 내용과 사진들을 올리지 말고 댓글 조심 할 것
10. 학생 능력과 실력에 비해 과한 학교 지원 자제 할 것
11. 막연하게 관심 있는 분야를 전공으로 선정하여 지원하지 않기 특히 컴퓨터, 엔지니어링, 경제, 경영, 생명 공학, 국제 관계, 영문학, 디자인, 순수 과학분야 등은 가장 입학이 까다로운 전공들이다.
12. 여름 방학 동안 한국에서 학원 다니면서 SAT 공부만 하지 말 것

앞으로 해야 할 것들

1. 고등학교 3-4년 아카데미 코스 체계적으로 짜기: 가능하면 관심 있는 분야를 학교에서 최고 레벨까지 가기, 문과와 이과 모두 깊고 균형 있게 수강
2. 균형잡힌 교내,외 활동 지속적 이면서 깊게 하기: 아카데미 관련 클럽, 학교에 공헌 하는 분야, 개인적인 즐거움과 관련된 활동
3. 여름 방학 동안 흥미 있는 분야 개발과 모험적인 경험: 봉사 활동, 외국어 교환 프로그램 참여, 스포츠 또는 음악과 아트 분야 발전, 재능 개발과 확대, 일(Job) 경험 등
4. 재능 있는 분야 경시 대회 준비(음악, 아트, 과학, 엔지니어링, 디베이트, 외국어, 수학 등)
5. 저학년부터 칼리지 투어를 통해 자신과 잘 맞는 학교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관심 있는 대학들과 지속적으로 대화
6. 주변 많은 정보는 참고로 하고 자신만의 유일한 특징을 만들어 발전
7. 충분한 리더십 경험
8. 자신 있고 흥미 있는 과목 깊게 공부하고 추후 대학 지원시 확실한 전공을 정할 수 있도록 준비
9. 자신의 학교에 적어도 특정 분야에서 인정 받고 모든 선생님들과 좋은 관계 유지 하기 : 추후 추천서 부탁시 잘 써 줄 선생님이 너무 많아 고민 할정도가 되어야 한다.
10. 12학년이 되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업데이트 정보 준비하여 얼리 지원시 활용하고 추후 정시 지원시 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준비 등이 있다.

지난 3년간 아이비리그 대학과 MIT /스탠포드 대학 지원 상황을 보면 매년 증가 하고 있다. 2017년도 아이비리그 총 지원자는 281,060명중 22,805명이 합격하여 8.11%의 입학률이였다. 그리고 MIT 와 스탠포드의 경우는 총 64,320명이 지원하여 3,523명이 합격 5.48%의 합격률이였다. 결국 2017년도 미국 최고 대학 10개 학교들 총 지원자수는 345,380 명으로 이중 26,328명이 합격하여 7.62%합격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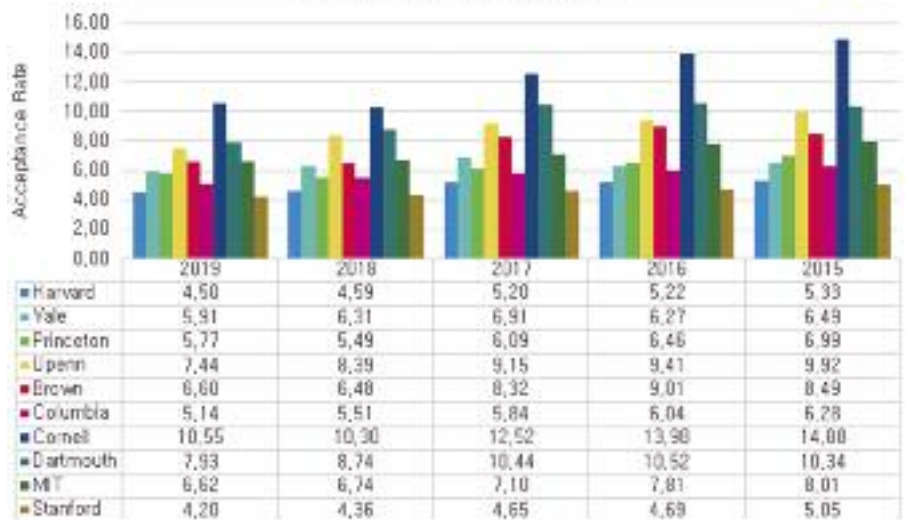
2018년도 아이비 리그 총 지원자는 306,909 명으로 이중 21,856명이 합격 7.12%합격률을 보였고, 스탠포드와 MIT는 69,156명이 지원하여 3,535명이 합격 5.11% 합격률을 보였다. 2018년도 미국 최고 10개 대학 총 지원자는 376,065명으로 이중 25,391명이 입학허가를 받아 6.75% 입학률을 보였다. 전년도 보다 약 31,000명 정도의 지원자가 증가 했고 입학생들의 수는 거의 전년도와 동일한 수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함을 볼수 있다.

올해의 경우 아이비리그 지원자 총 수는 311,948명 이다. 이중 21,168명이 합격하여 6.79% 입학률을 보였다. 물론 지원자수가 지난해 비해 약 5000명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스탠포드와 MIT 총 지원자수는 70,312이고 이중 3,467명이 합격 4.93% 입학률을 보였다. 올해 미국 최고 10개 대학 총 지원자는 382,260명으로 이중 24,635명이 합격하여 6.44% 입학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비해 6000정도의 지원자가 증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생은 756명이 감소한 해였다.

MIT Admission Rate



Acceptance Rate by Year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건금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건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문의	617-976-6200
로건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이역	617-345-7958
보스톤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톤수도	617-989-7000
보스톤시청	617-635-4500
보스톤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익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코올/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웹페이지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공정고 (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어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한국학연구소(한학)	978-407-7554
국제한국학연구소(한학)네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안전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병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주세주대권도협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스톤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494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인민회	781-854-8880
세력인민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도민연합회	781-424-5269
대한인정재인민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보호(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 향우 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80-299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대학교동창회(한미)	617-780-7205
성균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548-9052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617-792-8780
그리핀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낮아짐교회	781-832-2014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론교회	617-792-8780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203-861-1134
그리핀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수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턴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어일랜드성동교회	401-353-0983
로어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대생명의길장로교회	617-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할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동성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운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781-275-1763
보스톤안식일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예루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781-642-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어 벨트교회	978-274-2359
엘머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머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엘모튼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우스터장로교회	781-354-1843
웨스트프린티어 교회	97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땅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장로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선교회	617-441-5211

불교

민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보스톤 정토 법회	617-977-4227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	--------------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어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판브랜드스투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퍼사이드 청문	617-999-9616
아일랜드 건축	617-833-1360
파인원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 개인

골프 개인 PGA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 / 모기지

인디펜던트(투영)국	617-777-2929
에이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 / 에어컨 / 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진 노래방	617-782-9282
-------	--------------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649-6513
윤상대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떡 / 잔치 / 반찬(주문)

형제떡집	978-343-6080
장흥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키파티클럽	617-331-1011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통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 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86-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 헤어(Ble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177
MIN-AH MAKEUP	508-617-7122
Scotty's of Lexington	718-861-1277

돌상 대어/폐백

해피돌상	617-249-3131
폐백	978-688-0929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종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이민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병원(이재원)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한성식내과	978-854-6376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스킨&바디 클리닉	
메드스파라멜니스	617-2026261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8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클리닉로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척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빙 D.C.	617-230-4250
Hana Rehab Clinic	617-455-8073
보스톤건스태드카이로	617-277-0648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환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캠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비즈	617-871-1482
퀸지소아치과	617-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聖陽浦安 多不呂 波士頓 韓人聖堂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45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오후 4시 30분 (Korean)

평일미사
 (화) 오전 10시 30분
 (목) 오후 7시 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성당 야드세일
 시간: 6월8일 (토요일) 9am-4pm
 장소: 성당 친교실 (본당 1층)

45 Ash St. Newton MA 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뒤임목사 유 경 열

HANN 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685.7688**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성경대로 믿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LOVE FIRST
 PRESBYTERIAN CHURCH

담임 목사: 권중삼
 Faith Theological Seminary, M Div.
 New York Univ. M.E.
 한양대학교 대학원
 한기총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후 2시
주일 학교	오후 2시
전도인 공부	오후 4시
화요 공부	오후 7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구역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ittleton, MA 01460 Tel: (978) 696-3293, (978) 844-2404
 www.lovefirstchurch.com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9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학교: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4989 부동산 매개는

BH HS **버크셔 헤서웨이**
 BERKSHIRE HATHAWAY

617-969-사구팔구

www.bhh-sneprime.com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끄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지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Gift UP SOLUTION

UMS는 뉴저지에 본사를 둔 카드결제 전문회사로서 미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Gift 기프트카드 프로그램, 자회사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제품과 서비스들을 제공, 최적의 환경에서 비지니스를 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UMS 보스톤지사 공식딜러 **이선호**
781.266.7245
617.820.4833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새로운 100년의 주인공은 국민입니다

19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945 8·15 광복

1960 4·19 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

1987 6·10 민주항쟁

1998 IMF 외환위기 극복

2016 촛불 시인 혁명

2018 남북정상회담(판문점, 평양)

2019 3·1운동 100주년

2019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범죄도시' 감독 신작...김래원 '롱리브더킹: 목포영웅'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2017년 추석 극장가에 680만 이상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영화 '범죄도시'의 강윤성 감독과 배우 김래원의 만남으로 2019년 하반기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화 '롱리브더킹: 목포영웅'이 6월 개봉을 확정 짓고, '제1화-보스편' 포스터를 공개했다.



30일 배급사 메가박스 플러스엠에 따르면 오는 6월 개봉하는 '롱리브더킹: 목포영웅'은 우연한 사건으로 시민 영웅이 된 거대 조직 보스 '장세출'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세상을 바꾸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역전극이다.

함께 공개된 '제1화-보스편' 2종 포스터엔 '롱리브더킹 (LONG LIVE THE KING)'이라는 강렬한 로고 플레이는 물론 그간 김래원에게 볼 수 없었던 색다른 모습과 영화속 캐릭터의 매력까지 고스란히 담겨 2019년 통쾌한 오락 영화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롱리브더킹: 목포영웅'은 누적 조회수 1억뷰, 누적 구독자 197만명(카카오페이지)의 레전드 웹툰 원작 '롱리브더킹'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범죄도시'로 2017년 오락 액션 영화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강윤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전작에서 보여줬던 위트 있는 연출과 새로운 스토리로 한 층 더 업그레이드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

다.

강윤성 감독은 '롱리브더킹: 목포영웅'에 대해 "액션, 유머, 그리고 감동까지 있는 오락 영화"란 말로 '범죄도시'와는 또 다른 재미의 오락 영화의 탄생을 알렸다. 여기에 영화 '프리즌', 드라마 '흑기사' '닥터스'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카리스마부터 여심을 사로잡는 로맨틱한 모습까지, 다양한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였던 김래원이 거대 조직 보스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인물 '장세출'로 또 한번 인생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김래원은 "이전 작품들과는 접근하는 방식부터 달랐다.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 강윤성 감독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전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 '돈', 드라마 '라이프' 등을 통해 배우로서 존재감을 드

러냈던 원진아가 '장세출'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열혈 변호사 '강소현' 역을 맡아 강단 있는 캐릭터를 그려낸다. 여기에 '극한직업' '사바하' '범죄도시'에서 완벽에 가까운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며 '믿고 보는 배우' 로 자리매김한 진성규가 '세출'의 라이벌 조직 보스 '조광준' 역으로 분해 영화적 재미를 극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3선에 도전해 '세출'을 위협하는 반대파 '최만수' 역의 최귀화가 극의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

이처럼 영화 '롱리브더킹: 목포영웅'은 탄탄한 스토리와 섬세한 연출력, 배우들의 완벽한 캐릭터 싱크로율까지 갖춘 최고의 화제작으로, 2019년 하반기 새로운 흥행 신드롬을 예고하고 있다.

aluemchang@news1.kr



'나랏말싸미' 송강호가 세종대왕

(서울=뉴스1스타) 정유진 기자 =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의 시작을 함께한 두 사람, 가장 높은 곳의 왕 세종(송강호)과 조선시대 역불 정책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신미스님(박해일)의 한글 창제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이번 '한글의 시작' 예고편은 영화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기 충분하다.

정치적으로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시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한글 창제를 시작하고 맺었던 세종은 신미스님과 함께 뜻을 합쳐 한글을 만든다. 왕인 세종에게 "굳이 왜 문자

를 만들려 하십니까"라고 묻는 신미스님의 대사와 같은 백성의 것이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신념을 내세우는 세종의 담대한 표정은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 이면의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한다.

그뿐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스님이 어떻게 가장 높은 곳의 왕을 만나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사용하는 한글 창제 과정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 역사에도 기록되지 못했던 숨은 인물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예고하며 관객들의 눈길을 모은다. 여기에 세종과 신미로 분해 신분과 종교를 뛰어넘어 오로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뜻을 함께하는 두 사람의 협업과 우정을 그려낸 송강호와 박해일의 연기 호흡을 기대하게 한다.

eujenej@news1.kr

6월 9일 - 6월 15일

재미로 보는 주간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p> <p>●운수:갈 길은 멀고 할 일이 많은 때입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한 걸음부터 차근차근 걸어가야 합니다. ●금전: 필요 이상의 지출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원가를 구입하기 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합니다. ●애정: 자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참고 넘어가야 합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9, 12일 길일, 11, 14일 주의.</p>	<p>소띠 빨리 대화로 풀어야</p> <p>●운수:제대로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안 하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정말 꼭바로 할 자신이 없으면 처음부터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계약이나 거래는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칫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애정: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해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심각하게 되기 전에 빨리 대화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10, 13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범띠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p> <p>●운수: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해주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가까이에 좋은 정보가 있으니 귀 기울여서 듣고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금전과 관련하여 도움 받게 됩니다. ●애정:점수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싹트는 계기가 생깁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11, 14일 길일, 9, 13일 주의.</p>
<p>토끼띠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아야</p> <p>●운수: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쓸데없는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그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가진 것이 많고 적은 것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 마음만 불편해집니다. ●애정:영혼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밍글하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12, 15일 길일, 13, 14일 주의.</p>	<p>용띠 유리한 변수가</p> <p>●운수: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를 것입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금전:무경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 금전적으로 유리한 변수가 생기겠습니다. ●애정:부부의 마음이 화합하니 집안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0, 12일 길일, 9, 13일 주의.</p>	<p>뱀띠 첫 발을 내딛게 되는</p> <p>●운수:행복으로 가는 계단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훗날에 중요한 의미를 줄 것입니다. ●금전:되로 주고 말로 받는 운세이니 여러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적어졌습니다. ●애정:상글은 새로운 만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서 흘러가는 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9, 14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말띠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p> <p>●운수:내 손에 없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금전:생각지도 않게 지출할 일이 발생하거나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애정:무엇이든지 어설피게 하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합니다. 이왕에 봐줄 것이라면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10, 15일 길일, 9, 11일 주의.</p>	<p>양띠 하루하루가 새롭고</p> <p>●운수:좋은 사람을 만나니 하는 일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금전:지금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한 것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일이 성사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옵니다. ●애정:작은 곳에서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가 새롭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1, 14일 길일, 9, 13일 주의.</p>	<p>원숭이띠 생각을 단순하게</p> <p>●운수:생각을 단순하게 하도록 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금전:지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도움을 요청해오는 사람 때문에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애정:본의 아니게 자꾸 언타고 있습니다. 속마음과는 다르게 하는 말과 행동이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2,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p>닭띠 처음부터 잘해야</p> <p>●운수: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튼튼하게 잘 쌓지 않은 탑은 결국 오래가지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조금만 마음을 비우세요. 괜한 욕심을 내다가는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이리도 없나고 속으로만 한탄하지 마세요. 믿음만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편안해집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9, 13일 길일, 10, 11일 주의.</p>	<p>개띠 길게 내다보고</p> <p>●운수:갑자기 한꺼번에 밀렸던 일을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길게 내다보고 현명하게 판단을 내리면 그 덕으로 이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서로가 함께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해도 풀리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0, 14일 길일, 12, 15일 주의.</p>	<p>돼지띠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p> <p>●운수: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내일을 위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금전: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거나 매상이 증가합니다. 꼭 필요했던 것을 큰 마음먹고 구입하게 되니 기분도 좋아집니다. ●애정:이렇게 좋을 것을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1, 15일 길일, 10, 13일 주의.</p>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플리마켓 보조로 일하실 분 구합니다.
T. 508-863-6208

뉴장수 갈비에서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Full Time 또는 Part Time 모두 가능)
T. 781-272-3787

생활서비스

광고 문의 617-254-4654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BTS 웹블리쇼 K-팝의 새역사 썼다' - BBC

(서울=뉴스1스타) 박형기 기자 =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새 역사를 썼다고 영국의 BBC가 3일 보도했다.

BBC는 1~2일 이틀간 진행된 BTS의 웹블리쇼 공연 중 1일 첫 공연 리뷰를 통해 "BTS가 웹블리쇼 스타디움에서 공연한 첫 한국 가수"라며 "BTS가 새 역사를 썼다"고 전했다.

BBC는 BTS가 퀸, 엘튼 존, 마이클 잭슨, 롤링스톤스, 마돈나 등 대스타들이 섰던 무대에 섰다며 '아미(Army)'로 불리는 팬층은 대단히 헌신적이고 날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BBC는 특히 불과 얼마 전 2만 명을 수용하는 O2 아리나에서 공연을 펼쳤던 그룹이 6만 명의 관객을 모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BTS는 8개월 전 O2 아리나에서 공연을 벌였었다.

BTS는 이날 공연에서 모두 24곡을 불렀으며, 6만여 명의 팬들



이 열광했다. 이들은 퀸의 리더 싱어 프레디 머큐리에게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BTS의 멤버인 김남준은 "영국은 나에게 커다란 벽이었다. 그러나 오늘밤 나는 여러분과함

께 그 벽을 깼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안영미, '라스' 12년 사상 첫 여성 MC 발탁... "합류 시기 조율"

(서울=뉴스1스타) 윤희정 기자 = 방송인 안영미가 '라디오스타' MC가 된다.

MBC '라디오스타' 관계자는 5일 뉴스에 "안영미가 새로운 MC로 발탁이 됐다"며 "정확한 합류 시기는 조율 중"이라고 했다.

최근 '라디오스타'는 지난 3월 하차한 차태현의 빈 자리를 매주 다른 스페셜MC로 채워왔다. 안영미는 지난 5월 29일 스페셜 MC로 출연, 김국

진 윤종신 김구라 등 기존의 세 MC와도 좋은 호흡을 보여준 점이 이번 고정 MC 발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안영미의 진행자 발탁은 '라디오스타' 12년 역사 중 첫 여성 MC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또 안영미만의 독특한 유머 코드가 라디오스타와는 어떻게 어우러질지 궁금증이 모이고 있다.

ichi@news1.kr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OTK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MA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건축 & 시공

20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매사추세츠 건축사 전문 라이선스 보유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기획 • 설계 • 허가 • 시공 • 관리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your home!
Please call us for your major and mid-size renovation and new build projects.

otk212@gmail.com 617.620.8242

No handyman jobs, please.

© 2019 OTK DeCon Group

보스톤 전망대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정은6 LPGA US오픈 우승

대한민국의 이정은6 선수가 노스캐롤라이나 소재 찰스턴(Charleston) 컨트리클럽에서 6월 2일 폐막된 74회 여자 US오픈에서 우승했다.

이 골프코스는 예로부터 러프가 길고 그린의 몹시 빠른 것으로 악명이 높은 코스였다. 명예의 전당의 선수로 유명한 베스 다니엘 선수는 시합 전에 충고하기를 모두 1)깊은 러프를 탈출하고 2)빠른 그린을 주의해서 3)퍼트를 하지 않도록 신경 쓰며 3)어려운 코스이니 인내심을 가지고 경기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다. 3퍼트가 줄을 이었고 러프 탈출은 몹시 힘들었다. 맨 마지막 리더그룹으로 경기했던 10명 선수들의 성적이 합계 30오버파였다. 오직 이정은6 선수만 1 언더파를 기록하였다. 나머지 모두는 오버파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해설을 맡은 줄리 잉스터는 후반 12번 홀을 지나면서 지금까지 경기 감각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선수는 이정은6 선수뿐이라는 지적을 했었다.

이정은6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전반부에 스윙리듬이 빠르게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었다. 샷이 제대로 된 것에 만족한다" 고 실토했었다. 마지막 날 단독 6위로 출발한 이정은6 선수는 최종라운드 합계 6언더파 278타를 기록하면서 엔젤 인(Angel Yin), 유소연, 렉시 탐슨(Lexi Thompson) 선수를 2타차로 따돌리고 승리하였다. 아마추어 최우수선수상도 19세의 재미동포 지나 김(Gina Kim)이 차지해서 기쁨이 배가되었다.

이정은6 선수가 여자 US오픈 챔피언을 차지함으로써 지금까지 한국 선수들이 모두 10차례나 US오픈에서 세계 정상으로 등극했다. 1998년 박세리 선수가 맨발의 투혼으로 처음 정상에 오른 뒤 김주연(2005), 박인비(2008, 2013), 지은희(2009), 유소연(2011), 최나연(2012), 전인지(2015), 박성현(2017), 이정은6이 정상을 밟았다.

미국은 지금까지 총 51차례 US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한국은 뒤를 이어 두번째로 많은 10회 우승을 기록한 것이다. (2014년에 우승한 미셸 위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만약 그를 범 한국선수로 여긴다면 미국은 50차례 한국은 11차례 우승국이 된다)

이정은6 선수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100만불의 상금을 받게 되고 앞으로 10년간 US오픈에 출전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상금 100만달러로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제가 좋아하는 게 한국 라면이다. 제가 우승하면 꼭 그걸 먹겠다고 정해뒀다. 오랜만에 한국 라면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고 답했다.

자신의 옆에 항상 따라 다니는 "6"이라는 숫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자, 지금 KLPGA 투어에서 이정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선수가 6명인데 그중에 여섯번째로 입성해서 6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6이라는 숫자를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혔다.

한국에서도 3라운드에 6타를 쳐서 우승한 경험이 있고, 이번 US OPEN에서도 6언더파로 우승을 하게 된 것이다. LPGA에서 이정은6는



이정은6(23)은 한국 여자프로골퍼

"씩스"로 통해서 그대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정은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정은은 4살때 아버지 이정호씨가 덤프트럭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하반신 마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승합차를 운전하며 딸을 뒷바라지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2012년과 2013년 장애인 전국 체전에서 탁구 금메달을 수상했고 2017년에는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집념의 달인이다.

아마도 딸의 DNA는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았음이 틀림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회 개막을 앞두고 미국 골프협회가 운영하는 시리우스 XM 라디오쇼에 타이거 우드의 전(前) 스윙 코치인 Hank Haney가 출연해 USA 여자 OPEN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한국인이 우승할 것이며 한국선수 6명의 이름을 댈 수 없다. 사실 잘 모른다. 이름을 말할 필요가 있다면 성이 "이"인 선수라고 하겠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미셸 위와 아나카 소랜스탐, 카리 웹 등이 헤이니의 발언을 지적했고 결국 PGA TOUR는 헤이니의 방송 출연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려 버렸다.

미셸 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나는 한국계 미국인 여자 선수로 헵크 헤이니의 발언은 나를 실망시켰다. 인종 차별과 성 차별은 웃일 일이다. 헵크당신이 부끄럽다."며 그를 비난했다.

헤이니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여자 선수들에게 잘못된 발언을 한 것에 사과한다. 후회를 하고 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한국 선수들을 불쾌하게 한것에 대하여 사과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530) 미중 무역 전쟁과 증시

주식시장이 불안하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이라고 미디어는 말한다. 개인투자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식시장이 더 하락하기 전에 팔고 나와야 하나?'라는 생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무역전쟁은 중국과의 무역적자 때문만은 아니다. 중국은 2025년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기술력 90%까지 점유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세계로부터 기술을 훔치거나 기술을 공유해야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조건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미국과 서방세계는 중국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용인할 수 없다 이것은 세계무역협회(WTO)에서 설정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일반 회사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국가가 주도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중국과의 무역과 기술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본다.

* 미국 경제는 매우 건실하다. 실업률은 지난 50년 이래 최저이며 물가상승 역시 최저를 유지하고 있다.

* 중국이 수입하는 \$200 Billion에 관세로 25% 올린다고 해도 미국 \$21 Trillion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0.6%에 불과하다.

* 미국 총생산량(GDP)에 미치는 영향은 2.4%이지만 중국은 3.7%(\$13.4 Trillion 경제)이다.

* 중국은 미국에 \$500 Billion을 수출하고 미국은 중국에 \$200 Billion을 수출한다. 누가 물건을 사는 사람인가? 미국이다. 물건 사는 사람이 유

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두가지 선택이다. 중국 화폐(Yuan)를 평가절하하고 중국이 소유한 미국국채(\$1.1 Trillion)를 판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화폐 가치는 이미 2018년 6월 이후 8%나 절감되었고 같은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자 하는 나라는 유럽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가 미국채를 보유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5%에 불과하다.

단기적으로 무역전쟁으로 물건값이 상승하기에 개인의 소비 활동이 둔감해지고 회사역시 투자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염려로 경제가 침체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이 받는 충격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다.

중국에 미국과의 무역 합의 조건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로널드 레건 대통령 시절 일본과 무역전쟁이 있었다.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중국보다 매우 높았고 석유(Oil)는 100% 수입에 의존했기에 바로 굴복했다. 그 이후 일본은 경제와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다. 중국은 이런 선례를 잘 알고 있다.

무역전쟁은 누구나 원하지 않는다. 미국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선 짓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고급 기술을 훔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에도 큰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결국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다.

일반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흥분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은퇴한 투자자도 비상금을 항상 유지하여 하락하는 장세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주식시장은 300% 이상 증가했다. \$30만 불 투자가 \$120만 불로 4배로 불어났 것이다.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변함에 동요하지 말고 장기 투자한다는 느긋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이유이다.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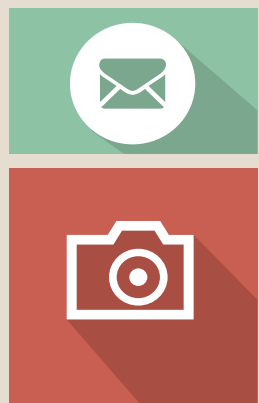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698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친정 언니와 형부가 보스턴에 오시고..

내 어머니 그리운 날이다. 20년 전 친정 엄마와 막내 언니 그리고 조카들이 여름방학 때 다녀갔었다. 그리고 엄마는 그다음 해(2000년도)에 미국 막내딸 집에 다녀가신 후 돌아갔다. 그리고 막내 언니는 조카들과 미국에 다녀갔었다. 친정 조카는 어려서부터 이모집에 여름방학 때마다 다니러 왔었다. 그리고 공부하러 왔다가 미국에서 자란 조카사와 만나 결혼하고 뉴욕에서 살고 있다. 이제는 두 아이 엄마가 되어 남편과 두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 막내 언니와 형부가 딸아이(조카딸) 집에 다니러 왔다가 보스턴 동생 집에 들렀다가 가게 되니 더욱더 반가운 일이다.

오늘은 남편이 쉬는 날이라 언니와 형부 그리고 남편과 넷이서 바닷가(Hampton Beach)를 드라이브하게 되었다. 형부와 남편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기에 조금은 어색했지만, 동서지간이라는 관계에 충실하고 서로를 챙겨주었다. 곁에서 바라보는 언니와 나는 남편과 형부에게 고맙기만 했다. 바닷가 근처를 돌게 되었으니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 근교에서 '메인 랍스터

'를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막내 녀석에게 전화를 넣어 만나자고 하니 이모와 이모부를 뵈러 여자 친구랑 함께 왔다.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떨만 있는 집에서 나는 늦은 막내라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니 한국에 가도 가슴한편이 서운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래주는 언니가 있어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더욱이 막내 형부는 때때마다 정성스럽게 챙겨주시니 고맙기 그지없다. 우리 세 아이가 어려서 한국에 놀러 가도 여기저기 구경시켜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남편은 형부의 그 따뜻한 마음을 알기에 한국에서 친정 조카가 놀러 오면 본인도 조카에게 최선을 다해 챙겨주곤 하였다. 지금 생각하니 서로 챙겨주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우리 부모님은 사위 복은 있으셨다는 생각을 한다. 큰 형부도 장인, 장모께 넉넉히 잘하셨던 사위였다. 둘째 형부는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라 근검절약해 넉넉히 베풀지는 않았지만, 필요할 때에 쓸 줄 아는 사위였다. 특별히 막내 형부는 엄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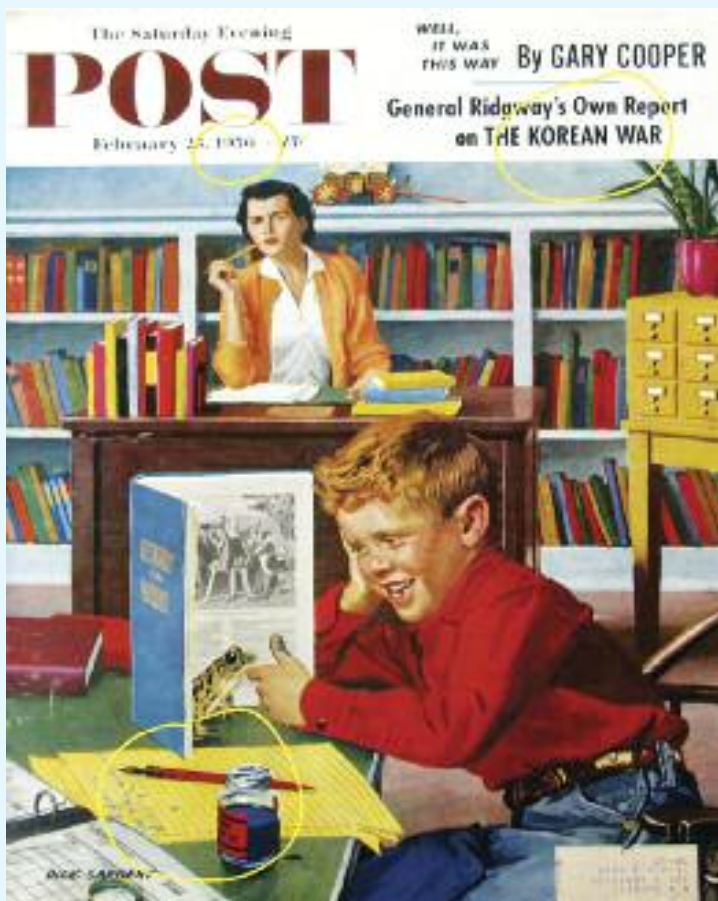
정 많고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사위였다. 내 부모님을 챙겨주시는 형부의 그 마음이 늘 감사했다. 그래서 조카들이 미국에 놀러 오면 챙겨주고 싶었고, 무엇인가 나도 보답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이제는 조카들도 모두 훌쩍 커버리니 언니와 형부도 이제는 환갑을 맞고 보내고 있다.

30년이 넘도록 타국 먼리 살다 보니 친정 가족이 그리울 때가 종종 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친정 조카가 뉴욕에 살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동생과 처재를 보러 바쁜 일정을 조율해 미국에까지 오시기는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딸이 미국에 사니 딸아이 보러왔다가 동생과 처재를 보러올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말이다. 이번 언니와 형부가 잠깐의 보스턴 방문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다. 이렇게 단 며칠이라도 언니랑 함께 그리고 형부랑 친정 가족이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내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다.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보시면 참으로 행복해 하셨을 것이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해에 집 옆에 작은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사계절 푸르른 모습으로 있어 엄마를 만나는 느낌으로 소나무를 찾는다. 파란 하늘과 바람 사이 꽃피는 봄과 나뭇잎들이 푸릇한 여름, 오색 단풍 물드는 가을 그리고 하얀 눈이 쌓이는 겨울 그렇게 지금도 가끔은 그 소나무를 만지며 기도를 하곤 한다. '엄마, 나 잘살고 있지요?' 하고 묻곤 한다. 오늘도 엄마를 생각하며 이른 아침에 소나무를 만나고 왔다. '엄마, 언니랑 형부가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고 말이다.

친정 언니와 형부가 보스턴에 오시니 엄마가 더욱 생각이 났다. 요즘은 미국과 한국에서 전화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전화 요금도 얼마나 싸지 모른다. 30년 전에는 전화 통화료가 비싸서 서로 목소리 듣고 울먹이다가 긴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끊을 때가 많았다. 오랜만에 엄마 생각이 더욱 간절했던 오늘이다. 언니랑 형부랑 함께 있어 많이 행복해서 더욱이 엄마 생각이 간절했었나 보다. 형부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남편에게도 고마운 시간이었다. 모두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선택된 관계(시댁, 처가댁 등)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음이 감사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오래된 잡지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국신문에서 봤다. 패스트트랙.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이었다. 신속 처리안건이라 하던데, 쇼트트랙은 들어봤다. 빙상경기 종목인데, 한국이 꽤 잘하는 종목이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패스트 푸드라 한다. 맥도날드 매장에서 음식온도는 말할 것도 없다.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균일하다 했다. 고객이 기

다릴 수 있는 임계시간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었다는 거다. 심지어 주문대의 높이도 일정하다 했는데, 뽕집 파넬라도 그렇다고 들었다. 모든게 속도전이고 정확성이며 균질이다. 빠른대신 엉망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졸속을 엄히 금하는 모양이다. 빨라도 맛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속도가 우선이 아닐적도 있다. 오히려 느리고 오래되어 정겨운것도 있다는 거다. 오래된 잡지도 그중 하나이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상이 오 늘처럼 빠르지 않았을 적이다. 1956년 미국 잡지 표지이다. 눈에 확 띄이는 게 있었다. 표지에 실린 장난꾸러기 표정이 재미있는데 개구리를 가지고 놀고있다. 개구장이 책상엔 펜과 잉크도 놓여있다. 그 시절 펜 글씨는 잉크가 번지는 맛도 삼삼했을까 틀림없다. 잉크병이 옆질러지는 건 문제였다. 이젠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카톡으로 쓰고 읽는다. 아리랑 그리고 명랑. 한국에서 발행된 대중잡지 이름이었다. 시인 박인환이다. 시인은 잡지표지를 통속하

다했다. 오래된 건 낡았을 텐데, 통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대신 명랑할 수는 있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게 거를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 (목마와 숙녀 중에서, 박인환) 잡지표지 구석엔 리지웨이 장군의 글제목도 실렸다. 한국소식이였다. 장군은 한국전쟁 정전후, 한국주둔 유엔군 사령관이였다. 어디 그뿐이라. 옛적 영화배우 개리쿠퍼이름도 보인

다. 표지 소년도 많이 늙었겠다. 얼굴 주근깨는 없어졌을까? 흘려 쳐다보던 여선생님도 안녕하신가? 소년의 얼굴은 명랑해 보인다. 빙상경기 이상화선수가 은퇴했다. 더 이상 쇼트트랙은 없는 건가? 얼음판 위에서는 빠름이다. 오래된 잡지에서는 세월이 한참 느려서 쇼트트랙도 패스트 트랙도 아니다. 개리쿠퍼 주연영화 하이네이션 시간이 초침처럼 짜깁이더니. 새것은 빨리 오는데, 오래된것은 천천히 가는가? 6월이다. 6.25한국전쟁이 벌써 70년 전 이야기이다. 세월만 빠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16)

보스톤 **코리아**
www.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이제 인터넷 신문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이메일 주소 혹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온라인 신문을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스톤코리아
기사를 확인하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기억속에서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날을 보게 되면 나는 시카고의 겨울을 생각한다. 미국생활의 첫 걸음을 시카고에서 2년간 보냈기에 항상 가슴 한구석에 따뜻한 부분이 있다. 출근길의 눈길을 이 보스톤에서 운전하면서 시카고의 향수를 생각하다보니 지나간 많은 인연들이 떠올랐다. 좋은 인연들, 나쁜 인연들, 어색하게 끝난 인연들... 직장과 대학원의 인연들은 그 당시에는 매일 얼굴을 마주치던 절친한 인연들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 인연들이 영원히 계속 될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들의 이름마저도 가물가물 해졌다. 나쁜 인연들은 다시 생각하면 화가 나고 혈압이 오를것 같지만, 시간이 그 감정을 둔화시켜서 이제는 그냥 미소 지을수 있게 되었다. 시카고를 다시 찾아봐야겠다고 늘 생각하지만, 갈때 마다 본일만 보고 하루만에 돌아오곤 했고 옛 추억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 가을에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다녀왔다. 감회가 새롭고 가슴이 벅찬 느낌이었다. 다시 가본 캠퍼스는 많이 변해서, 예전에 살았던 대학원 아파트 단지는 공

원으로 조성 되었고, 새로운 건물들, 거리가 만들어졌다. 유일하게 24시간 열어서, 책을 들고 자주 찾았던 도넛가게는 아직도 활기를 띄우고 있었다.

그러나 같이 지냈던 인연들은 대부분 이름도 기억나지 않았다. 연락이 안된지 30여년이 되어서, 가끔거리는 봄날의 아지랑이 같다고나 할까. '그때는 참으로 열심히 올라가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은 울컥거렸다.

사람들은 오늘에 충실하고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한다. 지금 내게 부딪친 문제들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인연들이 나에게 가장 영향적인 사람들 이라고 느낀다. 오랫동안 부동산, 관련의 일을 하다보니, 그느낌이 더 절실하다. 부동산 매매는 시한부 과정이다.

주택매매 계약을 하고 세를먼트를 하기까지 약30여일이 걸린다. 주택매매를 해본 사람들은 공감하겠지만, 이 30여일이 엄청난 긴장의 날들이 될수 있다. 사람살이가 다 그렇듯이 항상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지고,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야하는 드라마

같은 30여일이다. 그 과정에서 피가 바짝바짝 마를때도 있고 '욱' 하고 분이 치밀어 오를때도 있고, 어처구니 없다고 느낄때도 있다. 이런 30여일이 지나고 나면 비로서 세를먼트의 결실을 맺는다. 아이를 낳는 느낌, 그때의 느낌이 마치 오랜 인고 끝에 아이를 낳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되고 한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 그렇게 힘들게 성사시킨 거래의 기억도 결국은 시카고의 향수와 같아지는 것이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었구나', '내가 그렇게 좋아했었구나', '내가 그렇게 실망했었구나' 등등... 어렸을때는 성과를 위해서 몸도 마음도 다 바쳐서 뛰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성과는 결국 흔적도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인정이나 하려는 듯이, 시카고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받은 상패가 몇년 전 이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박살이 났다. 그때의 느낌이 '내가 이 박살난 상패를 위해서 그토록 뛰었었구나' 라고 미소 짓게 되었다.

나름 성숙했다고 믿고 싶어서, 사회 초년생때는 성과를 위해서 뛰었다면, 요즘은 좋

은 인연을 위해서 뛰다.

성과에 목표를 둔다면 결국 과정의 기복이 클 경향이 있고, 그 과정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좋은 인연과 여정에 목표를 두면, 그 여정내내 즐거움으로 변한다. 이제는 20여년이 지난 후에도 돌아보면서 좋은 기억만 남길 수 있도록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278 화랑세기花郎世紀, 11세 풍월주風月主 하종夏宗(19)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두었다. 모종은 후일 22세 풍월주를 지낸 양도의 아버지이고, 영모는 김유신의 정처가 되었고, 언니 유모는 후처가 되었다. 유모는 14세 풍월주 김호림의 아내였다. 호림공은 처음에 8세 풍월주 문노의 딸인 현강과 결혼했었는데 현강이 조졸하였다. 그리고 유모와 결혼하여 아들 김선종을 낳았다. 이 선종이 바로 을사 또는 법사로 불리는 그 유명한 자장慈藏이다.170)

하종은 풍월주를 3년간재임하고 부제인 보리공에게로 넘겨주었다. 그때가 591년이었다. 그는 전임자들의 재임 전통에 따라 3년만 위치에 있었다. 초기 풍월주들의 재임 기록이 없어서 재임 기간이 불확실했었는데 이로써 모든 전임 풍월주들이 3년 정도만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세 풍월주 모랑공은 재임 중인 555년에 창녕지역의 국경을 둘러보러 갔다가 병을 얻어 객사하였다.

한편 보리공은 풍월주의 위를 사양하면서 하종에게 예외적으로 더 머물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하종은 앞의 상선(전임 풍월주)들은 모두 성인이었는데도 3년만 하고 물러났는데 미실의 아들이라고 하여 더 할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그래서 보리공이 12세 풍월주로 올랐다. 보리공이 바로 화랑세기의 저자인 김대문의 증조부이다. 화랑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그때 은륜공주가 왕의 총애를 잃었다. 곧 태

상태후의 막내딸이었다. 태상이 대원을 걱정하여 하종공에게 명하여 받들도록 하여 효종공을 낳았다. 이에 앞서 설원공의 딸인 미모낭주를 아내로 맞아 아들 모종을 낳았다. 효종의 누이는 하희와 율희라 했다. 모종의 누이는 유모와 영모라 했다. 공은 검소하고 색을 삼갔으며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을 공경하여 세종의 품모를 크게 가졌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공에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도 끝내는 귀부했다.

3년간 재위하다가 보리공에게 양보하며 말하기를 "앞선 풍월주들이 큰 성인이었는데도 오히려 3년간 재위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오래 머물겠는가?" 했다. 보리공이 말하기를 "주형주님은 곧 미실 원회의 아들이다. 어찌 못 화랑들과 더불어 같은 예로 하겠습니까?" 했다. 공이 굳이 사양했다. 보리공이 이에 풍월주의 자리에 올랐다. 보리공은 나의 증조이다. 일찍이 나의 아버지에게 하종공을 칭찬하여 말하기를 "지금 세상에 이 같은 효자충신은 없다" 했다.]

『今世無此孝子忠臣也(지금 세상에 이 같은 효자충신은 없다).』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 말은 전에 아이들은 예의범절이 좋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성세대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기도 하다. 역사서나 고서들 속에서도 심심찮게 실려있는 구절이다. 그럼 과연 세대가 내

려울수록 아이들은 버릇이 더 없어졌을까? 그렇다면 지금 아이들은 모두가 '망나니' 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때는 안그랬는데 요즘 젊은 이들은 참..." 사실일까? 『今世無此孝子忠臣也』 지금 세상에 이 같은 효자충신은 없다』 는 하종에 대한 칭찬은 하종이 살았던 1,500년 전에도 불충불효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반증한다.

170) 자장율사(590 ~ 658년)는 진골 출신으로 속명은 김선종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황룡사 9층 목탑의 창건을 건의하여, 645년에 완성하였다. 그리고 통도사와 금강계단(국보 290호)도 세웠으며 전국 각처에 10여개의 사당을 세웠다. 또한 관리들의 관복 착용을 건의하여 신라에서 처음으로 관복을 입었다.

자장의 아버지 김호림은 14세 풍월주였으며, 호림의 부모는 복승갈문왕과 송화공주이다. 누이는 진평왕의 왕비 마야부인이다. 마야부인은 천명공주와 선덕여왕의 어머니이다. 어머니 송화공주는 진평왕의 생모 지소태후와 박영실 사이에서 태어났다.

복승갈문왕은 산종공과 사도미의 아들이다. 산종은 제21대 소지왕과 연제부인 사이에서 태어났고, 사도미는 법흥왕의 딸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8만여편의 한국방송 및 최신영화
내 안자로 골라보는 합법 IPTV

tv... Since 2008
2008년부터 안정적인 합법권리료 서비스업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유익이기에 우리 하레보



티보플레이 **TBO** 1년에 단 한번

1+1 호도이벤트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사랑하는 부모님께 티보플레이로
즐거움을 선물하세요

우리집에 설치
첫번째 티보플레이 ~~\$34.99~~ \$29.99

부모님댁 설치
두번째 티보플레이 ~~\$34.99~~ FREE

2번째 기기는 기기값만 \$55 (이용료 1년 면제) 1년 이후 \$9.99

1년간 \$1 유료 영화도 모두 무료

5월1일 ~ 6월 30일 (단 두달간)

우리집에 티보플레이 설치하면 부모님댁에는 무료! 티보플레이 1+1 호도이벤트



더 작아지고 강력해진 NEW 티보플레이

- 북미주 전역을 커버하는 판매/AS 딜러 네트워크
-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시간에 보는 서비스
- 마음 놓고 보는 합법 방송
- 리모콘 하나로 컴퓨터 없이도 쉬운 시청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채널
티보에 모두 다 있다

TV켜고 리모콘누르면 끝!

컴퓨터 조작이 서투르신 부모님
이제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하나도
부모님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실수 있습니다

성인가요 바둑 인기유튜브
강의 종교/설교 드라마
미주로컬라디오 다큐멘터리
시사 예능 스포츠 뉴스



티보플레이 지역별 가입안내

- 서부** 시애틀 (KTR 253-835-1004) 북가주 (Sky Comm) 408-257-2525 샌디에고 (Ace Tech) 619-316-4182 LA 교차로 (Kyochan) 213-383-1236
- 중부** 시카고 (교차로) 847-391-4112 필라델피아 (News Korea) 872-247-9111 샌안토니오 (코리안 마켓) 210-445-1535 덴버 (아리랑 마켓) 303-756-1743
- 동부** 애틀랜타 (SND Tech LLC) 678-584-6514 오하이오 (주강필라) 267-230-7773 버지니아 (NAV Computer) 709-942-6822
보스턴 (The Boston Korea) 617-949-1766 NY 교차로 (Kyochan) 917-685-9665 New York, New Jersey 917-488-1072
- 캐나다** 토론토 (경향미디어) 905-832-3333 밴쿠버 (교차로) 604-420-1068

상담 및 가입문의 무료전화

617-949-1766

LA 가입/문의 **213-999-7090**

본사주소 3435 Wilshire Blvd. #2915, LA, CA 90010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친구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이제 몇주 있으면 Father's Day가 다가온다. Mother's Day와 다른점이 있다면, 그리 요란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아이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아버지도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을 한다. 그런데 Father's Day가 Mother's Day 만큼 대두되지 않는 현상을 접하며 아버지라는 존재의 중요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한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 두가지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핵가족'의 가족구조 변화와 현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되는 '남성화'의 요인을 말한다.

대가족의 가족구조에서 태어난 아기는 다양한 '애착형성'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본적인 애착형성을 토대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등의 다른 식구들로 다양한 애착형성을 경험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하루종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이와 시간을 많이 안보내도, 어머니의 무한한 관심과 사랑, 할아버지의 다정한 훈육, 할머니의 무조건적인 애정, 삼촌, 고모, 이모가 주는 관심들로 건강한 애착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점은 다양한 애착관계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성(Social Intelligence)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해도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강한 아버지, 위엄과 힘을 가진 신과 같은 아버지, 과묵한 아버지의 동일시(Identification)가 '좋은 아버지'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강하고, 위엄있고, 과묵한 아버지의 동일시가 '좋은 아버지'로 형성된 아이는 아버지의 말에 힘을 느끼고, 아버지가 훈육하는 도덕관념, 질서, 올바른 행동을 지키면서 건강한 도덕관념과 행동의 질서를 갖게된다. 아이의 성장과정에 건강한 애착형성만큼 중요한 것, 훈육이 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산업화시대가 등장하면서 대가족의 가족형태가 무너지면서 핵가족이 탄생되었다. 시 부모를 안모셔도 된다는 해방감과 함께 젊은 부모들은 핵가족을 절대적으로 선호했다. 핵가족의 구성형태는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어머니와 아버지로 국한된다. 그러다보니 핵가족의 아기의 초기 애착형성은 대가족의 형태와 다르게 아버지, 어머니 두 사람을 통해 형성되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핵가족의 구조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건강한 애착형성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어지고 있다. 많은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다. 문제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을 접했던 현 시대의 아버지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다정하고 친구같은 아버지 상과 자신이 경험한 엄

격하고 무서웠던 아버지상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잘못을 해도 훈육을 한다기 보다, 친구같은 아버지가 되려 잘못을 고쳐주기보다 친구처럼 무마한다거나, 같이 놀아준다고 하면서 아이에게 게임기를 주면서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결국, 너는 왜 이렇게 하나며 하는 훈육의 대화를 하는 혼란된 아버지 상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상이 아이에게 동일시 되는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 한국을 떠나 미국 땅에 정착하여 핵가족의 형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몇배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혼란된 아버지 상은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피 치료에서 만나는 한국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참 열심히이다. 오랫동안의 실수를 고치려 참 많은 노력을 한다. 건강한 '친구같은 아버지' 동일시의 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려 자신이 억눌러왔던 자신의 아버지와와 아픈 관계를 어렵게 끄집어 낸다.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었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것 같다고, 그러다보니 자신이 싫어했던 아버지의 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었다고 인식한다. 미국 문화에서 갈등하는 아이들을 이해하려 많은 질문을 하고 고치려 애를 쓴다. 테라피 치료에 참여하는 아버지를 아이들의 사춘기 형성에 따라 두 부류로 나누어 본다. 사춘기를 겪었으나 아니나에 따라 관계회복의 치료의 수월여부가 있음을 조심스럽게 피력한다. 온정과 훈육을 겸하는 '친구같은 아버지' 상이 아이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청소년 후의 아이들보다 청소년 전의 아이들이 훨씬 수월하다. 사춘기 전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아직 '훈육의 대상자'로 동일시되어 있고, 온정과 훈육을 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 사춘기 전의 아이들은 캠핑, 운동, 여행 등을 통해서도 소원했던 소통이 복구될 수 있는데, 사춘기 후의 아버지들은 몇배의 노력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미 고착되어 있는 아버지의 동일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버지나 청소년기의 아이들이나 힘든 과정을 몇 번씩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춘기 이후의 아이들은 자신이 싫어했던 혹은 증오했던 아버지의 동일시에 도전을 시작한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면서 미워하는 아버지의 아이덴티티에 반항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계속 훈육을 하면 관계는 더 악순환이 되기 쉽다. 훈육보다는 아이를 자신과 같은 어른으로 대접을 하고 배려의 말과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 관계회복에 훨씬 도움이 된다.

크리스가 마리화나를 피우다 학교에서 적발이 되면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다. 집에 와서 큰 소리를 치며 야단을 치는데 크리스는 아버지에게 반항을 시작했다. 너무 화가 난 아버지는 크리스를 때렸고, 크리스는 아버지를 맞받아서 때렸다. 이것이 큰 화근이었다. 크게 몸 싸움이 나면서 이웃집이 경찰을 부른 것이다. 경찰은 아버지를 체포했고, 가정폭력으로 DCF가 크리스 가족에 관여하게 되었다. 테라피 과정을 통해, 크리스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특 하면 신체 폭력을 했고 그때의 상처로 자신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마음에 지니고 살아왔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의 할아버지는 크리스 아버지 마음안에 증오의 대상으로 절대 닮고 싶지 않는 '적대자의 동일시'의 상대였다. 적대자의 동일시는 미움의 대상자이기에 잊고 싶어도 잊기 힘든 대상자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닮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크리스의 아버지가 진정으로 크리스에게 사과를 하면서 관계회복은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크리스도 학교에서 일으키는 말썽을 중지하였다.

끝으로, 두번째 요인인 현 시대가 사회구조로 인해 변화해야만 하는 '남성화'를 말하면서 칼럼의 마무리 지어한다. 핵가족과 산업화의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여성의 권리 및 평등을 주장하는 성평등의 '페미니즘'이 부각되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여성의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면서 더 이상 가족의 생계는 아버지의 몫이 아니게 된 것이다.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되면서 남성중심적 가족 구조에 변화가 시작됐다. 페미니즘은 1900년대 미국에서 개발한 경구피임약이 상용화되면서 백인 중산층 여성이 페미니즘의 주축이 되었다. 그 이후 새로운 조류를 타고 페미니즘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갔다. 이렇게 여권이 신장되면서 '남성화'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남성의 힘과 완력의 '남성화' 보다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다정한 '남성화'를 선호하는 성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과묵한 아버지, 위엄을 가진 아버지, 힘있는 아버지의 상보다 친구같은 아버지 상이 요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남성화의 상징이었던 힘과 배짱보다는 다정하고 섬세한 남성화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대가 원하는 '좋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변화하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데 몇 배가 힘이든다. 하지만, 아버지들이 변화해가는 현재의 '아버지상'을 빨리 적응하여 온정과 훈육을 겸영하는 '친한 아버지'가 많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 잊지 말자! 친한 아버지는 친하고 편안한 애착형성에서 시작됨을...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24 Harvard St.
Brookline, MA 02446
74 Elm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12(right)
Brookline, MA 02446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 만성수술

직업병, 식습관, 생활환경으로 오는 만성질환?

병원 선택/ 의사 선택/ 예약 및 치료절차/ 치료 후 사후 관리/ 비용등...

이 모든 걱정으로 선택 못하신 고국방문 수술.

휴람은 국내수가로 부담없는 비용에 편안하고 안전한 진행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치질, 담낭용종(결석), 탈장, 하지정맥류, 요실금,
자궁근종, 전립선비대증, 코골이, 목/허리 디스크,
관절질환, 암질환, 심장/뇌혈관질환 등등.

좋은 가격!!! 높은 퀄리티!!! 친절한 서비스!!!

휴람은 상담부터 치료진행,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에 검사 하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수술은 병원에 따라 입원기간 및 비용,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휴람 척추관절 네트워크 병원 - 휴람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세란병원(독립문역)
강남지인병원(학동역) / 장트위튼병원(서울대입구역) / 강남병원(신갈역)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미국, 캐나다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HURAM(1-844-364-8726)
Tel : 070-4141-4040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a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 문의

보스톤코리아 617-949-1766

협력업체

보스톤코리아

보스톤 한인업소록



구글에서 찾을 수 없는 한인업소들의 알짜 정보를 담은 한인업소록을 발간

보스톤의 모든 한인 업소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

2013년 보스토니안 발행이후, 6년만에 보스톤 한인업소록을 개정해서 발간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2019년 보스톤 한인업소록에는 보스톤 지역뿐만 아니라, 로드 아일랜드 및 뉴햄프셔 등 뉴잉글랜드 지역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망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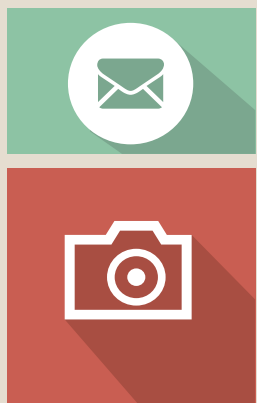
이 디지털 한인업소록은 카톡, 페이스북 등의 SNS와 이메일 등으로 고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지금 바로 보스톤코리아로 연락하십시오.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

광고 문의 및 업소등록을 원하시면 :
upsorok@bostonkorea.com으로
이메일하세요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1.800.867.9000

Cell 508.962.2689
Tel 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 kayleebrokers@aol.com



- * 상가 건물 전문-투자, R&D, 콘도, 아파트 건물
- * 상가 건물 용자, 비즈니스 용자 알선
- * 1031 Exchange (상가건물 세금 혜택) 서비스
- *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 * E2 바자 사업체 전문-비즈니스 무료 상담
- * 다양한 리스팅 많이 보유

보스톤 북쪽, 런드로멧 연매상: \$230,000 매매가격:\$199,000	보스톤 남쪽 런드로멧 & 건물 연매상 \$600,000 비즈니스와 건물 함께 매매 \$1.5M	로드아일랜드 성업중인 한국 식당 연매상 \$2.1M, 매매가격 \$800k 플리커 면허증, 72석, 대학교 근처
보스톤 북쪽: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안전한 매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 \$444,000 최고의 위치, 꾸준한 고객들, 30+ 년이상 존재	렉싱턴 근교 세탁소 드랍 연매상 \$165,000 40년+ 운영, 소유자건강 문제, 공장소유자 환영
우스터 지역: 일중식 식당, 연매상:\$500,000, 풀 리커 면허증. 퍼터백 야구팀이 RI 주에서 이전. 우스터 지역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음	보스톤 남쪽, 보스톤에서 15분 거리, 세탁소 + 사쓰유닛, 연매상:\$850,000, 새 장비 no perc 쓰는 세탁기계	보스톤 서쪽 풀 플랜트 & 셔츠 기계 최고의 위치, 대형 플라자, 40년이상 존재 연매상: \$390,000+
보스톤 남쪽: 성업적인 드랍 세탁소. 연매상:\$233,000, 매해 매상 증가	보스톤 북쪽 풀 플랜트 연매상 \$120,000+ 고급 동네, 좋은 매매가격, 처음 사업 시작하는 바이어 환영. 오우너 파이낸스 고려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과 부동산 (오파스 콘도) 식당 연매상 \$725k, 플리커 면허증, 고급 동네 매매가격 \$2M, 셀러 은퇴
보스톤 근교: 연매상: \$210,000, 퍼크 쓰지 않는 세탁 기계 교체 (2018), 좋은 위치	보스톤 북쪽: 세탁소, 풀 플랜트 + 사쓰유닛 연매상: \$265,000, 고급 동네, 좋은 위치 소유자 은퇴	프래밍햄 지역: 런드로멧, 연매상 \$250,000 소유자 100% 부재중 운영, 새 기계들
주유소+컨비니언스 여러장소 리스팅 있음		

마음대로 골라본다

\$24⁹⁹

5월 1일부터 Tbo 상품의 가격이 인상됩니다.

상품 가격이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다. (무료영화는 4월 및 5월까지 무료, 6월부터 편당 1불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⁹⁹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YOUTUBE

\$34⁹⁹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중편, 영화/성인, YOUTUBE

\$39⁹⁹

티보 대리점 모집

각 딜러는 LA 본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초기 자본 없이 창업이 가능합니다.
주요 업무: 신규 서비스 설치 및 기존 고객관리
연락처: 617.949.1766

총 13개 Live방송중

티보 실시간 한국방송 서비스 확대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합뉴스TV MBN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